

한우미당

vol.199

Hanwoo Journal
2023.06



6월호 표지 이미지

- 28 **권두언**
한우산업, 축산업-지역경제 한 축 담당
여기구 국회의원

기획특집

- 30 **구제역 발생현황
위기상황별 방역조치**
- 36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서 한우 마케팅 총력
- 38 말레이시아 한우 수출 '첫발'

기획·초점

- 42 **초점**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 44 **초점**
'한우산업 전환법' 정책토론회



이슈·동향

- 58 축산물 PLS 도입 경과 및 추진 현황
- 62 [한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68 5월 한우동향분석

사양·컨설팅

- 76 비육 후기 입담음 현상 대책
BA플러스
- 80 구제역 발생에 따른 한우 농가 차단방역 요령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 86 2022년 한우산업 전후방산업 규모
- 92 2022년 한우사육농가
경영실태 및 농가인식 조사

문화마당

- 102 재미있는 단오절 풍습과 의미
- 106 미세먼지, 그것이 알고 싶다
- 110 협회사료 안내
- 112 구독안내



전국한우협회



sunjin 50

국·내·최·초

원피딩 500

전 구간을 하나의 사료로!

“원피딩 500을 쓰고 나서는
한 사료만 주면 되니 정말 편하네요”

전국 300여 개 농장의 사장님들도

원피딩 500의 편리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주)선진

EASY FARMING, HIGH LIVING 3 Free - Hands Free · Disease Free · Complaint Free
www.SJ.co.kr 이천 (031)637-1181~5 | 서부 (042)718-5200~3 | 영남 (053)857-5135 | 서울 (02)2225-0661

한우산업, 축산업-지역경제 한 축 담당 농가-업계의 단단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어려움 공감하며 '정책적 지원' 최선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님과 전국의 한우농가 여러분의 노고에 새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식생활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육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쇠고기의 공급량과 쇠고기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우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현재 8만9,000호에 달하는 한우 사육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74%를 차지할 정도로 축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우산업 종사자 분들에게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원자재 가격과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위기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우가격도 보험세에 머무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한우 가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우 농가들을 만나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늘 고민해 왔습니다.

한우농가와 업계의 단단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며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당진지역에도 1,000호에 가까운 한우농가들이 3만 마리에 가까운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우농가들은 최근에 도래한 한우산업의 위기를 두고 되풀이 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우농가들이 처음 겪는 위기가 아니라 또 다시 맞는 위기라는 사실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우농가들이 민족 고유의 품종인 한우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보다 신선한 소고기를 제공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디 한우산업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이땅위의 자존심' 한우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국의 한우농가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하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국회의원 여기구

구제역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0일(수)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총 11건이 잇따라 발생되었습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긴급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으로 최대 고비를 넘기고 다소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협회와 정부는 추가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현황과 위기상황별 방역조치 등을 안내하오니 회원농가 여러분께서는 구제역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종식선언 시기

마지막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매몰을 완료한 날로 3주 뒤 위험지역 내 가축 항원·임상·혈청 검사를 거쳐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구제역의 추가발생이 없다면 청주는 6월 15일, 증평은 6월 13일부터 3km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1. 구제역 발생 현황: 1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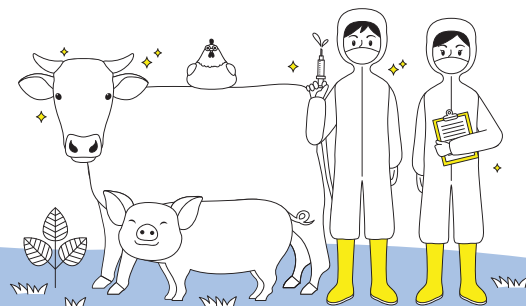
연번	구분	신고일 (확진일)	시도	시군구	축종	사육 두수 (두)	혈청형
1차	신고	'23.5.10 ('23.5.10)	충북	청주시	한우	216	O형
2차	신고	'23.5.10 ('23.5.10)	충북	청주시	한우	166	O형
3차	예찰	'23.5.10 ('23.5.11)	충북	청주시	한우	68	O형
4차	예찰	'23.5.11 ('23.5.11)	충북	청주시	한우	50	O형
5차	예찰	'23.5.12 ('23.5.12)	충북	청주시	한우	45	O형
6차	신고	'23.5.14 ('23.5.14)	충북	증평군	한우	398	O형
7차	신고	'23.5.15 ('23.5.15)	충북	청주시	한우	186	O형
8차	예찰	'23.5.16 ('23.5.16)	충북	청주시	한우	177	O형
9차	예찰	'23.5.16 ('23.5.16)	충북	증평군	한우	106	O형
10차	예찰	'23.5.16 ('23.5.16)	충북	청주시	염소	61	O형
11차	예찰	'23.5.18 ('23.5.19)	충북	청주시	한우	98	O형

2. 청주·증평 축종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22년 기준)

시군	항체양성률(%)		
	소	돼지	염소
청주	97.0	92.3	90.8
증평	98.5	93.6	75.0

3.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 비교

구분	현행 (주의)	조정 (발생·인접지역 '심각' + 그 외 지역 '주의')
위기 단계	○ '주의' *발생·인접 시·군은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조치 중	○ (충북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심각' 단계 ○ (그 외 지역) '주의' 단계
대책본부·상황실	○ 운영 *발생 지자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상황실 가동 (본부장: 기관장)	○ 지역 확대 운영 *발생 및 인근 지자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상황실 가동 (본부장: 기관장)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발생 농장, 보호지역 내 주요 도로에 설치 ○ (소독장소) 발생 농장, 방역지역별 주요 거점 장소	○ (통제초소) 해당 시·군 주요 도로에 설치 ○ (소독장소) 시·군간, 시·도간 주요 거점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행정명령	○ (소독) 발생 지역 및 인접 시·군 소 농장 출입 차량 거점 소독시설 방문, 세척·소독 ○ (이동 제한) 발생 지역 및 인접 시·군 농장 간 소 이동 금지(~5.30)	○ 방역대 해제 시까지 유지
가축시장 폐쇄	○ 발생 시·도 및 인접 시·군 가축시장 폐쇄 (~5.30)	○ 방역대 해제 시까지 유지
모임(행사)	○ 발생·인접 시·군 축산농가 모임 금지	○ 발생·인접 시·군 축산농가 모임 금지 + 전국 농가 모임 자제
소독	○ 발생·인접 시·군 집중 소독 (79개 소독자원 투입)	○ 구제역 발생 상황에 따라 집중 소독을 위한 소독자원 추가 투입
긴급백신	○ 발생·인접 시·군 긴급접종 + 전국 우제류 농가 긴급종	○ 현행 유지



4. 구제역 백신 및 소독 철저 당부



협회로 축사소독 모습(사진·영상)을 전송해 주세요

☎ 010-7110-1053

✉ 025251053@daum.net

네이버밴드 전국한우협회 검색 후 가입

방심은 금물! 구제역 확산 차단!

1

방심은 금물! 구제역 확산 차단!

**의심 증상시 신속히 신고하여
한우산업을 지켜주십시오.**

전국한우협회

2

축산농가 소독 및 행동요령

농장내외부 소독 철저

- 농장출입 모든 차량 및 가축 소독
- 방역복/장화/장갑착용 및 농장 소독

철저한 차단방역

- 외부인 농장 방문 자제
- 농가간 모임 및 행사장 방문 금지
- 해외여행 금지
- 외국인근로자 지자체 신고 및 방역수칙 교육

전국한우협회

5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기준

◎ 추가 감액기준 (발생한 사항은 예방살처분 농가·음성판정사·도 감액 적용)

재발생	최초 5년 이내 동일 가축전염병이 동일 농장에서 재발생 ※ 시행일(78.5.15) 2년 이내 발생건만 재발횟수 선정시 포함	2회 발생	3회 발생	4회 발생
사육제한	사육제한 명령 위반시	20% 감액	50% 감액	80% 감액
역학조사	항체가 검출된 경우	100% 감액	40% 감액	20% 감액
축산법 관련	축산법 미준수 미이행	30% 감액	40% 감액	60% 감액
방역기준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및 소독 조치 미이행	10% 감액	10% 감액	10% 감액
해외 입국시 조치	공방만에서 입국 미신고 및 검역관의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 거부 (발생과 관련 없는 경우)	10% 감액	60% 감액	60% 감액
사설 차량	소독 설비 방역시설 미설치	20% 감액	5% 감액	20% 감액

전국한우협회

6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기준

◎ 추가 감액기준

방역활동	농장 소독 및 구충·구서 미실시	5% 감액
역학조사 <td>검사, 주사, 투약 등 명령위반</td> <td>5% 감액</td>	검사, 주사, 투약 등 명령위반	5% 감액
의심축 신고 <td>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td> <td>100% 감액</td>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100% 감액
발생시 조치 <td>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 및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td> <td>20% 감액</td>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 및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	20% 감액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 위반	20% 감액
	병원체 오염물건의 소각·매몰·소독 명령 위반	20% 감액
	병원체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	20% 감액

전국한우협회

3

구제역 증상 즉시 신고

☑ 체온상승 ☑ 식욕부진 ☑ 물집 및 궤양

*물집은 발굽 및 궤양지에도 발생됨

코구멍 물집 및 가피

혀의 물집 및 거품 침출됨

입술 잇몸 물집 가피

입주변 물집 및 궤양

전국한우협회

4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기준

◎ 발생농장에 대한 지급기준 (21.10.14 시행)

지급 기준	구제역 브루셀라병(소) 발생시	80% 지급
① 시군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 농장		
②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장		
③ CCTV 확인결과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노력 인정 농장		90% 지급

전국한우협회

7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기준

◎ 추가 감액에 대한 경감기준 (발생에 따른 20% 감액은 경감되지 않으며, 추가감액시만 경감)

경감 사유	10% 경감
외관상 증상이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났기 전에 신고한 경우	
출입기록, 진화예찰, 살처분명령 이행, 역학조사 협조, 오염물건 소각 등 지자체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경우로 지자체 추천시	

◎ 과태료 규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위반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500	750	1,000
구제역 예방접종 의의 명령 위반	200	400	1,0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3)

※ 합정검사서에서 백신 항체양성을 80% 미만일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 보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음.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

전국한우협회

8

구제역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
1588-9060, 1588-4060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을
담당드립니다!

전국한우협회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서 한우 마케팅 총력

고급부위부터 부산물 가공품까지 총망라
고급화·대중화 전략...현지 바이어 '호응'



2023 HOFEX



우리 협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2023 홍콩 국제식품 박람회(HOFEX)'에 참가해 한우 해외 마케팅에 나섰다.

홍콩 국제식품박람회(HOFEX)는 세계 50여개국의 전문 바이어가 참관하는 글로벌 식품박람회로 중화권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한우협회는 그동안 주력 수출국이었던 홍콩의 수출량 증대를 위해 지난 2022년 시장 조사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며 홍콩 재공략 방안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수출 경매 및 검역 등의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활용한 이력 자료의 현지 언어 지원 ▲도축성적증명서의 다국어 지원 등을 추진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수출 주력 고급 부위인 등안채(등심·안심·채끝) 중심의 홍보를 벗어나 한우의 고급화와 대중화라는 이원화 전략으로 바이어를 공략했다. 한우 고급육과 중·저등급육의 신선육, 냉동육, 숙성육 및 정육부위, 한우 부산물을 활용한 가공품까지 총망라하여 전시하고 전체부위 수출을 위한 전사적 홍보에 나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한우 육포 등 홍보물을 추가 배포하여 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우 수입을 희망하는 바이어와의 상담이 약 200여 건에 달하는 등 현장을 방문한 해외 식품 바이어와 관람객의 폭발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이목을 끌었다.

현장에서 상담했던 바이어들과 후속 연락을 통해 자료제공 및 실제 발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홍콩 국제식품박람회는 행사 첫날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과 단비와 같은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다.

한우협회는 정부와 자조금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공략에 나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의 우수성과 훌륭한 맛을 앞세워 전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한우의 세계화로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한우 수출 '첫발'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우수출 1호 계약체결 기념행사
3년간 총 1,875톤...약 2천5백마리 한우고기 수출
정부, 새로운 시장 적극 발굴...한우 세계화 '교두보'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12일 금요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한우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에 정부와 함께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에 한우고기를 정식으로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 체결을 기념하여 말레이시아 정부, 현지 유통·외식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 연방농업마케팅청, 농업수의검역청, 이슬람개발부, 국제통상산업부, 주말레이시아 대사 등 정부 인사, 유통·외식업체 대표, 현지 언론사 등 총 1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한우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의 검역 협상을 시작으로 한우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우리 협회 또한 말레이시아 관계자들이 할랄 전용 도축장 시찰 후 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설명하고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등 수출 성사에 노력해 왔다.

이후 지난 3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킴(JAKIM,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이 국내 할랄 전용 도축장을 최종 승인하면서 한우고기 수출 길이 열리게 됐다.

자킴 인증 마크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와 60년 이상 활발히 교류해온 국가인 말레이시아로의 한우 첫 수출이 가시화되는 자리에 현지 정부 인사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한우의 수출이 확대된다면, 한우 수급 안정과 농가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 상황이 발생됐지만 기존 수출국인 홍콩과 이번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은 지역화 검역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량이 일시 조정될 수는 있지만 수출이 중단되진 않는다.

다만,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신규 수출국 확대에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삼주 회장은 “앞으로도 한우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다”며 한우 농가의 차단방역과 고품질 생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우 수출 1호 계약을 토대로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 한 해에 약 6백톤(소 약 2천5백마리)의 한우고기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전체 한우 수출실적인 44톤의 13배가 넘는 규모로 한우 산업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할랄 한우의 수출은 이번이 최초로, 19억 인구의 세계 할랄 산업을 선도하는 말레이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할랄 인증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에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을 계기로 한우고기가 운송·보관·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최초로 전 세계에 판매되는 한우고기에 표시되는 사항이 통일될 수 있도록 수출 계약단계에서부터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현지 소매점에서도 한우 수출 공동브랜드 마크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제품에 부착해 수출국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 시]
상품 라벨지 표시(안)

[현지 소매점]
판매표지판 표시(안)

(기본형)

(간략형)

한우 세계화 위해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도 계획

한우 농가 차단방역
고품질 생산 만전 당부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5월 가정의달 맞아 서울 반포한강공원서 개최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물
저렴하게 제공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한 맛과 질 홍보



지난 5월 1일~2일 양일간 서울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이 열렸다. 이번 현장 행사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한편,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한 맛과 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축종별 자조금 및 23개 업체 51개부스가 마련되어 한우, 한돈, 계란, 닭고기, 우유, 오리고기 등 축산물을 최대 50%할인하여 저렴하게 판매했다. 한우 부스에서는 한우자조금이 한우의 다양한 쓰임에 관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이틀간 팝업스토어 형태의 임시 매장으로 진행됐다. 축산물 판매 외에도 유명 요리사의 요리 강연, 시식 행사가 열렸다. 또한, 현장 행사와 동시에 5월 17일까지 대형마트·온라인물·음식점 등에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병행 추진했다. 정황근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농가 생산비 안정, 소비자물가 안정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축산단체와 함께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회 김삼주 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으로 나선 축사에서 “고물이 고금리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행사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축산농가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품질의 신선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든든한 믿음으로 진심을 다해 생산된 국내산 축산물에 많은 관심과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축종별 자조금, 23개 업체 51개부스 마련
한우 할인판매,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움 선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법안 제정’ 토론회

축산환경 변화...한우산업 특성 고려 별도 법안 필요 ‘한목소리’

일시 2023년 5월 3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이원택·이개호·서삼석·신정훈·안호영·윤재갑·윤준병·주철현·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한국농어민신문·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현재 한우농가들은 가격 하락과 소비 위축,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시장 개방 여파로 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하고 농가 숫자도 크게 줄어들어 사육기반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한우산업을 지원하려면 현 상황에서는 축산법에 근거해야 하지만 축종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을 거치며 한우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농이 다수인 한우 농가를 보호하는 규정도 미비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우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이원택·이개호·서삼석·신정훈·안호영·윤재갑·윤준병·주철현·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한국농어민신문·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는 지난 5월 3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주제발표 1 한우산업전환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현행 축산법 40개 축종 관할...한우산업 한계 한우산업 보호·육성할 별도 법안 제정 시급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축산법은 1963년에 제정됐다. 제정된 지 60년이 된 축산법은 대상 축종이 40개가 넘는다.

한우산업은 40개 축종을 관할하는 축산법에서 운신할 폭이 없다.

정부는 축산법 안에 다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한우산업이 축산법 내에 존재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

사실 일본 국민들의 소고기 소비량은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 그럼에도 수입 개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와규 숫자는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장했고 늘어나는 소비는 수입 쇠고기로 대체했다. 그렇게 방어했다.

또 해외에 와규 생산기지를 설치해 수입하는 전략도 썼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며 와규를 증식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 약 7,500톤인 수출 물량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2-3배 늘리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육마릿수가 350만 마리

한우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 보전-온실가스 감축 모색
다양한 시대적 요구사항 반영을

수도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줬을 때 국민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 한우고기다.

이제 한우고기를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고기로 만들자. 그것이 세계화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법안에는 이력 관리 중심의 실시간 수급 관리 플랫폼과 한우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합리적인 송아지 생산과 비육우 경영안정제를 도입하고 경축순환 실현을 통한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국내산 사료 자급률 제고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한우 질병 차단·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한우고기 수출 촉진을 통한 K-비프 세계화, ICT 기반의 스마트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시대적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한우산업전환법의 입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주제발표 2 한우산업전환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

한우 관련 제도, 여러 소관 부처에 산재 환경 문제 등 시사각각 변화 대응에 한계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축산환경 변화에 부
응하기 위해 한우산
업전환법 제정을 위
한 여러 방안이 논의

말·양봉·낙농·곤충 등 관련법 존재
한우특성 반영 독자적 법 제정 마땅
쇠고기 수입 자유화 대비책 모색

호에 대한 규정,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에
따른 축산체질 개선
을 위한 규정, 축산발

됐고 이 법안은 한우 토종 유전자원 보존,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한우 수급관리, 농가경영안정제도 확립, 경축순환농업활성화, 한우 수출시장 개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축산법의 보완으로 이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우라는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했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포함해 여러 축종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내용으로 한 종합법이다.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축산법 제32조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지급된 적이 없을 만큼 유명무실해진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축산법 제32조의4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문기구에 국한되고 실제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한우산업은 소농이 다수지만 이를 보호하는 규정도 미비하고 한우의 유전자원 보

전시책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

이처럼 축산법은 한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며 여러 축종을 포괄한 축산법만으로 한우산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한우 관련 제도가 여러 소관 부처에 산재해 환경 문제 등 시사각각 변화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말 산업 육성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기능성 양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한다. 각각의 법률은 해당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법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한우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비해 독자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성숙됐다. 한우산업 특별법 제정은 2026년 쇠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토론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박일진
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사무국장



최성호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한양수 본회 부회장 >> 농가 입장에서 한우산업 전환법안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들겠다. 우선 중소농 보호다. 한우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방되고 미국, 호주, EU 등과의 연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급률이 저하되며 농가 수도 급감,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하락한 소 가격이 2026년이 되면 회복세로 돌아선다고 했지만 2026년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제로화되고 이후 다른 국가들의 무관세도 이어진다. 중소

농을 중심으로 급격한 농가 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중소농 보호를 위해 관련법이 꼭 필요하다. 특히 한우산업은 우리 농촌 경제와 농촌 사회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현재 축산 농가 중 80%를 한우 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등 한우는 쌀과 함께 대표적인 농업 생산 기반 산업이다. 또 축산업이 전문화, 규모화됨에 따라 축종별 별도 법안 마련도 요구된다. 축산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57차례 개정이 이뤄진 누더기 법안이다.

#종합토론



오늘날 변화된 한우산업 육성 진흥책을 담을 수 없고 포괄적인 영역만 담겨 있다. 축산법은 탄소중립에 따른 가축사육조건 변화, 환경 관련법 규제 강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도 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한우산업이 지닌 고유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한우산업전환법은 꼭 제정돼야 한다.

박일진 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 >>

축산업이 넘어야 할 과제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양분관리제, 사료 자급 위기, 소비행태 변화를 들 수 있다. 이 4개의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해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우선 한우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상당히 위태롭다.

한우 관련 방안 중 고체연료화는 한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한시적이며 지속가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제철소나 화력발전소에 고체연료를 제공한다는 안인데, 2030년도 제철소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고체연료를 필요치 않는 방향으

로 설정돼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축산법으로 관련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이 법 안엔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법적 근거로 한우산업을 지킬 수 없다.

또한 법이 이렇다 보니 기후 위기 대응과정에서 농가가 겪는 고통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축산법 체계론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다.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다른 방안은 없어 보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우산업전환법안엔 농가를 비롯해 소비자,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감수가 다 들어가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 수준에 이른 법안이다. 그런 만큼 한우산업을 지키고 보존하자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된다.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 >>

지난해 대선 때 유력 후보들이 식량안보를 공약에 모두 포함시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주권이란 말까지 썼다. 당연히 쌀과 함께 중

요한 식량 자원인 한우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 법 안에 자급률 향상 목표도 제시해야 한다. 기후 부분을 보더라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농가로서 관련 법안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 한우 농가들은 경축순환 농업의 핵심 고리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주요 수단 중 하나가 한우 분야다. 그걸 실천할 한우 농가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등의 검토도 관련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또 요즘 농업은 품목·작목별로 상당히 전문화돼 있다. 이에 맞는 전문화된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 한우만 특별히 관리할 법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번 법 제정 논의에 현장의 농민 의견이 정책에 수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 수십 년 농사지는 농민들보다 이론이나 경험적으로 더한 전문가들이 누가 있다. 이와 관련한 심의 의결 시스템이 이번 법 제정 논의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사무국장 >>

2021년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다. 그 법의 원칙 중에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이들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한우산업전환법에도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정부에선 축산법에도 축산발전 시책 속에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경축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올해 친환경 진영에선 한우

업계와 같이 경축순환을 위한 여러 시범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도 겪고 있다. 한우산업전환법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야 한다. 또한 한우산업전환법을 통해 경축순환 직불금 체계도 마련돼야 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에 경종농가도 참여하는 식의 발상의 전환도 요구된다. 분과 위원회도 가칭 경축순환활성화위원회를 넣는 등 한우산업전환법이 한우 농가를 넘어 전체 농가를 위한 법이 되었으면 한다.

최성호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자 했는데, 탄소중립 관련 간과된 것들이 있다. 사료 원료로 쓰이는 식품 부산물이 사료로 쓰이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되고 가공식품 단가도 올라간다. 그런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배출된다.

뱃짚도 예전엔 다 태워 온실가스가 배출됐는데 지금은 한우 먹이로 활용된다. 발생한 양만 아니라 사육 과정에서 한우 농가들이 얼마나 탄소중립에 기여했는지도 중요한 데 이런 부분은 간과돼 있다. 이에 대한 가치 평가 없이



#종합토론

발생량만 가지고 논하는 건 불합리한 처사다. 또 축산 관련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정확히 측정할 대학과 연구기관이 없다. 축산과학원에 그런 기능이 있지만 20년 동안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축을 통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 자료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도 해오고 있고 잘한 분야도 많다. 무엇보다 개량이 그렇다. 개량을 통해 사료 효율이 많이 개선됐다. 20년 전에 하루 14kg 먹여 1kg이 늘었다면 최근엔 1.1kg이 늘어났다. 그럼 10% 개선됐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생겨난 것이다. 한우 가격과 관련해서도 왜 수입육보다 비싸다고만 말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한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를 포함해 한우산업전환법안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안들을 다 담아야 한다. 정부의 축산 조직과 관련해서도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교수가 되고 농식품부를 찾아가면 축산 관련 공무원들을 이해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지금 농식품부 축산 부서에 축산

을 전공한 이들이 5%도 안 된다. 행정고시에 서 축산직이 빠진지도 오래됐다. 정부 축산 조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 한우산업전환법을 왜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입법과정에 도움을 줄 많은 논리적 내용을 제공해줬다. 한우산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한우산업의 대중화, 한우세계화 등 산업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이 우선 마련됐다. 또 축산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고, 온실가스나 양분관리제, 사료자급, 소비변화 등의 대응을 위해 관련법 제정 필요성도 제시됐다. 다만 한우나 (추후 논의될) 돼지 등 주요 축종이 축산법에서 나와 별도 법안을 만들면 축산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란 문제가 남았는데, 이는 축산법을 축산업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지닌 쪽으로 방향을 정립해나가면 된다고 본다. 이런 것만 잘 정립되면 국회 입법 심사하면서 충분히 대응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 필요성 공감...국회 입법심사 충분한 대응근거 마련을

‘한우산업 보호’ 정부의지 보여줄 때
다른 축종과 형평성 논란 안될말
특별법에 다양한 해결책 제시해야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화해 나갈지가 관건인데(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과 달리 한우산업전환법은 여당(홍문표 의원)에서도 발의를 했기에 정치 쟁점화 될 법안도 아니다. 조만간 여야 협의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 한우협회를 비롯한 한우업계에서 역할을 해주면 된다. 민주당 내에선 법안 소위가 열리면 한우산업전환법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다. 여당만 합의하면 5월부터 심사가 이뤄져 11월 정기 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우협회에선 국회의원들에게 왜 이 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대한민국 헌법 제 123조엔 국가가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규정들이 명확히 담겨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당위성은 충분하다.

한우는 토종 가축으로서 우리가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의무도 있다. 여기에 사료값, 전기료 등 생산비 상승과 부족한 인력난, 좁아지는 축산 사육 기반, 온실가스 문제, FTA 체결 등 한우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는 한우산업전환법을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공무원은 예산법률주의라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 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특별법은 의미가 있다. 한우가 먼저 치고 나가면 다른 축종도 나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 축산법과 겹친다고 하는데 한우산업전환법엔 축산법과 다르게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료를 비롯한 생산비 문제, 바이오에너지, 한우 목표 가격, 인력 확보, 분노해결 방안, 중소농 지원 등이 들어가야 한다. 한우산업클러스터 조성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농이나 협동조합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고체원료화, 축산 농지 확보, 경축순환, 방역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법안 제정’ 토론회

한우산업 육성·보호 정부도 공감
수급 안정 등 정책적 노력
별도 법률 제정은 신중 기해야

VS

법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현실적으로 겹치는 법률 많아
특별법 제정...기본법에 우선 적용

전북·경남지역 150여명 한우 농가 참석
한우산업전환법 조속한 제정 촉구



정부 답변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 별도 법률을 만드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축산법이 오래되고 낡았다고 하는데, 반대로 축산법은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법이다. 한우산업전환법이 축산법에서 벗어날지도 의문이고, 낙농진흥법을 비롯해 말, 양봉, 양잠, 진돗개, 곤충 등 별도 축종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 법들은 주요 축종인 한우, 돼지, 닭이랑 생산방식부터 유통, 가격 결정 체계 등이 달라 축산법을 통해 활성화하기 어려운 축종들이다. 축산법 대부분은 한우와 돼지에 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축산법엔 한우와 관련된 장치들이 많다. 한우 개량과 관련한 개량 목표설정이나 개량센터 설치, 유전자원 관리를 비롯한 농업 생명 자원 보존, 가축시장이나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 위한 생산안정제, 소고기 등급판정제 등이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관련 조항들이 있다. 그럼 한우산업전환법이 제정되면 축산법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와 새로 담을 것이냐. 이게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온실가스, 양분관리, 사료자급, 소비행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산업전환법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한우 농가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정부 입장에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정부에서도 한우협회 의견도 충분히 듣고, 농가나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면서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

정부 입장에
대한 발제자
들의 반박

정승현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 정부에선 축산법이 정통성이 있고 안정화된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견 틀렸다. 법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하며 그렇게 돼야만 법의 효용성과 국민 수용성이 높아진다. 다른 축종에 대한 문제 제기도 틀렸다. 주요 축종은 소·돼지·닭·오리다. 그중에서도 한우는 축산 농가의 80%를 차지하고, 만일 한우산업이 붕괴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축산업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 정부에선 이미 축산법에 다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정재환 과장께서 유전자원 보존 기능이 축산법에 담겨 있다고 했는데, 축산법에 담겨 있는 유전자원 보존에 대한 내용을 읽어 보겠다. 축산법 9조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청중토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게 어떻게 한우 유전자원을 보존, 보호하는 규정인가. 다 있는 것처럼 말하는 데 없으니 필요한 거다. 전문가인 여러분이 축산법을 읽어보시고, 왜 없는 걸 있다고 하나고 따져 물어야 한다. 또 법들이 겹친다고 하는데, 그렇기에 기본법과 특별법이 있다. 겹치는데 기본법에 비해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해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김대중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탄소중립을 비롯해 규제는 강화되는데 우리 한우 농가들은 숨도 못 쉴 정도로 죽을 지경이다. 왜 이 시기(한우가격 폭락, 생산비 급등 등)에 탄소중립을 거론하면서 농가들을 더 힘들게 하나. 이걸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은 공감하지만 그러면 적어도 지원은 나와야 하지 않나. 고양이가 쥐를 몰 때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했다. 더욱이 우리는 조사료도 심고 축분을 이용해 경축순환 농업도 실천하고 있다. 지금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꼼꼼히 잘 해놨다고 본다. 1963년 제정됐다는 축산법은 우리 농가에 와 닿는 게 없다.

이근수 前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우리 농가부터 한우산업전환법에 대해 절실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내년 총선이 좋은 기회다. 지역에서 의원들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지금 만들지 못하면 어렵다. 우리 의지를 다져나갔으면 한다.

한기웅 본회 부산경남도지회장 >> 생산자가 노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부산물을 활용하려고 해도 생산자가 폐기물처리 허가를 내야하는 등 규제가 많다. 이걸 한우산업전환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법을 통해 편리성을 도모하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우산업은 버랑 끝에 놓이게 된다. 끝으로 한우농가가 모두 힘을 합치는 가운데 한우협회에 힘을 실어주며 빠른 시일 내에 한우산업전환법이 제정될 수 있길 바란다.

#인사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김제·부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년 전부터 김삼주 한우협회장을 비롯해 한우산업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눠 나온

결과물이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데,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은 시대적 과제다.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지, 적정 사육두수는 어느 정도에 맞춰야 하는지 등을 고민했고, 적정 사육두수를 기르게 되면 농가가 손해 볼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도 고민했다.

한우 농가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는 두 개의 도달점으로 갈 수 있게 법안을 설계했다. 축산법이 만들어진 시기와 현재 축산 앞에 놓인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66
축산농가 경영 안정제도 미비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지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99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정읍·고창)



한우를 많이 키우는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한우산업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최근 사료값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 한우산업에 위기와 시련이 겹치고 있다. 한우 생산 두수도 늘면서 한우

가격은 폭락해 있다. 기존 축산법 체계론 이런 어려움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우산업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순히 경기 변동 요인이 아니고 구조적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좋은 고견을 주시면 잘 귀담아 듣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 농정 기본 틀을 만드는 과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며 농정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해나가겠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축산 분야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먹거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한우 농가 경영 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가 제도는 상당히 미흡하다. 헌법엔 농산물 수급 안정 규정이 있지만 축산법엔 그런 규정이 근본적

으로 없다보니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다. 이 와중에 한우 가격도 떨어진 반면 경영비는 상승했다. 이로 인해 한우 농가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기후 위기가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탄소중립에 따른 여러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들을 잘 반영하면서 한우산업이 발전되고 농가에도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 여수·갑)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걸 보니 한우업계의 현주소와 농가들이 얼마나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을 바라는지 느껴진다. 현재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소 무관세가 임박해 있고, 이외

여러 자유무역협정과 탄소 중립까지 한우 농가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정부 시스템으로 농가 지원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전환법에 함께하게 됐다.

토론회 자리를 통해 한우산업전환법안이 좀 더 충실하고 제대로 만들어져 농가가 어려운 파고를 넘을 수 있길 기대한다. 국회에서도 힘을 보탬 테니 농가들도 힘냈으면 좋겠다. 한우 농가와 늘 함께 하겠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전북 남원·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행사지만 우리 지역도 한우농가가 참 많고 평소 한우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 행사장에 잘 왔다는 생각을 했다. 지역의 한우 농가들을 보니 반가움도 크다. 당은 다

르지만 한우 농가에 대해선 여야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입법적으로 한우산업전환법이 제정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 더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며 한우산업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남양주·병)



토론회를 많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이는 걸 잘 보질 못했다. 그만큼 한우 농가의 간절한 바람이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이라고

본다. 토론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한우산업 난국을 헤쳐 나갈 대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세계적으로도 명품 브랜드인 한우가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돼 농가 어려움도 해소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갈수록 한우산업이 축소되고 위기를 맞는 걸 국민 한사람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어떤 방식이든 열심히 동참해 역할을 하겠다. 법안이 통과되는 데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인사말

66
생산기반 구축-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뒷받침'
'한우산업 전환법'으로 위기 돌파
99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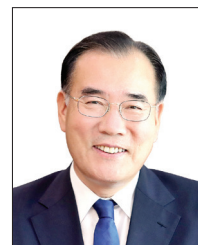


한우산업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국내 농업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또 먹거리 수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러나 한우산업은 지속적인 생산기반 약화, 한우가격 폭락 등 이중고에 놓여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한 지원대책도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택 의원께서 한우산업전환법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토론회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제 국회가 나서겠다.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을 통해 한우농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육에 전념하고 더 나아가 한우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이뤄나가도록 힘을 모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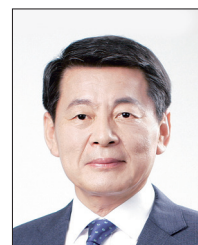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한우산업은 쇠고기 수입 자유화와 FTA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와 사육기

반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적 전환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축산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한우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우산업이 가진 특성성과 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내 육류소비량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한우농가들은 30%대에 불과한 자급률,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2026년 예정된

수입 쇠고기 관세 제로화는 농가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

1963년 제정된 현행 축산법에는 한우산업의 전업화와 시장 개방대응, 수급불안정, 환경문제, 경영안정 등이 빠져 있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한우산업의 안정·발전·전환을 위한 기반조성, 축산업 탄소 저감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등 시대변화에 따른 한우산업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대폭 강화



1. 전국 소, 돼지, 염소 농장 긴급백신 접종

- 각 농장은 **지자체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
* 소규모 한우농장 등은 수의사가 접종 지원

2. 구제역 발생 시·군(청주,충평)과 인접한 7개 시·군 집중방역

*대전, 세종, 음성, 진천, 괴산, 보은, 천안

- 농장 간 소(牛) 이동 제한, 가축 시장 폐쇄
-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집중 소독 실시**

3. 가축 관찰 및 임상검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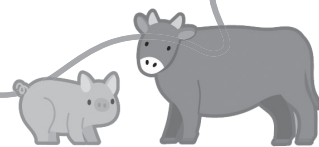
- 전국 모든 소, 돼지, 염소 농장에서는 **매일 사육하는 가축의 이상유무를 관찰**, 구제역 의심 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발생 시·군과 인접 7개 시군은 지자체에서 **주 1~2회 임상검사 및 전화 예찰 실시**

4. 국경검역 강화

- **휴대축산물 검역 강화**
-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 단속 강화**
- **축산관계자 등 입국 시 소독 철저 및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금지** (입국일~5일간)하도록 교육 홍보

☎ 가축방역기관 신고전화 1588-9060/ 1588-4060

축산물 PLS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경과 및 추진 현황



도입배경

- ◆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17.8월) 계기 먹거리에 대한 국민불안 확산
 - 소비 위축이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농가 스스로 개선 필요성 인식
 - * 살충제 계란사태 발생(8.14) 전후로 계란 소비량 46.0% 감소(8.30 기준)하고, 산지가격은 32.2% 하락(9.12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국조실 주 관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 TF 운영, 개선대책 중 하나로 농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방안 반영(17.12.27)
 - * 농산물 PLS 제도를 2019년도에 우선 시행, 축수산물 시행 일정은 추후 논의
 - * 허용물질목록관리제 도(Postive List System, PLS) :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은 허가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미허가된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 적용

추진 경과

- ◆ (부처.단체협) 축산업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도입*에 합의하고, 관계부처(우리부, 해수부, 식약처) 합동추진계획 마련('20.12.23)
- * (1단계 PLS) 주요 5대 축종(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 동물용의약품(외)품→ (2단계, 일정 미확정) 염소 등 전체 축종, 농약
- * (고시 개정) 1단계 PLS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완료('21.6.29), '24.1.1부터 시행 예정



구분		현행	PLS 도입 이후
기준 설정 품목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동일
기준 미설정	동물용 의약품	① CODEX 기준 ② 유사축종 최저기준 ③ 항균제 0.01 mg/kg 이하 ※ 그외 물질은 불검출	<u>0.01 mg/kg 이하로 일률 적용</u> ※ 단, 성장보조제(성장촉진호르몬제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

주요 추진 실적

① 동물약품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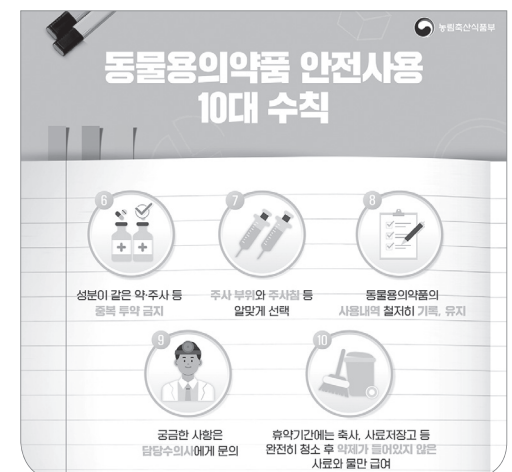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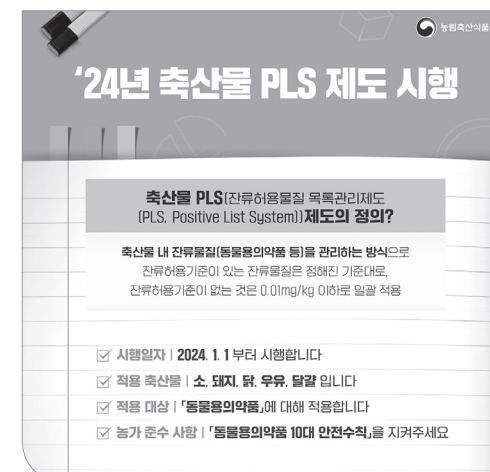
- ◆ 축산농가(1,000개소) 대상 동물약품 사용실태조사를 통해 미허가등록 제품군(29품목) 파악
후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신규 등록 추진
- * (품목) 동물약품 전체 제품을 동일한 성분·용법·용량을 기준으로 그룹화한 것을 의미
- * 신규품목 허가등록 현황(품목) (‘20년) 4 → (‘21년) 11 → (‘22년) 13 → (‘23년) 1

② 동물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

- ◆ 전체 동물약품(2,554제품)의 안전사용기준(투약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재평가 후 휴약기간 등이 미비한 제품 대상으로 연차별 정비 추진
- (서면 평가) 해외자료·업계제출자료 등 기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비하여 기 허가등록 제품 중 76%(1,912제품) 정비 완료
 - (시험평가) 잔류성 시험이 필요*한 제품(62제품)을 약리성분·용법으로 그룹화(180품목)하여 추진**('20~'23년, 120억), '23년 완료 예정
- * 과거 근거자료 없이 등록된 제품, 동일성분 약제 중 휴약기간 상이 제품 등
- ** 잔류성 시험: ('20년) 24품목 → ('21년) 52 → ('22년) 45 → ('23년) 59

③ 식품 잔류허용기준

- ◆ 동물용의약품 신규 허가등록 및 재평가 과정에서 식품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필요 성분에 대한 고시 제·개정* (식약처 협업)
- * 동물용의약품 18종(신설4, 축종추가12, 지표물질1종 등) 기준 제·개정(~22)
- ** 농약 중 동물용의약품외품 중복사용 성분 6종 정비('22.7. 행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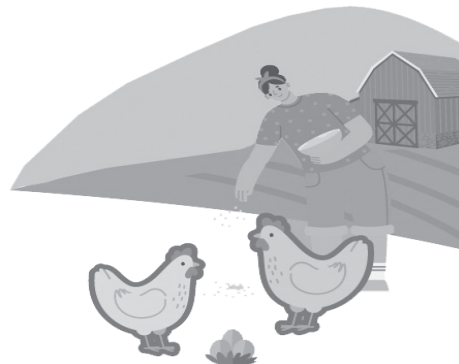


④ 동물용의약품 처방·유통·사용 관행 개선

- ◆ (수의사)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 의무 강화 및 처방 등록 시스템 개선
 -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등록(‘20.2~) 및 수의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22.11~), 축종별 미허가 약품 처방시 자동 알림 서비스 시행(‘22~)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기존) 32종 → (개정) 항균·항생제 전성분
 - 축종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22, 900부)
- ◆ (유통)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원 전문성 제고 및 단속 강화
- ◆ (농가) 안전관리 의무교육*(연간 11만명 이상) 및 홍보물 제작·배포
 - * 축종별 동물약품 주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 축산농가(11만명) 개별 발송

⑤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 강화 및 ⑥ 비의도적 오염 방지

- ◆ 국제기준에 준한 검사항목·비율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해 축산물 잔류검사 효율성 제고, 동시다성분 시험법 신설(‘22.7~)
 - * (기존) 99종 → (개선) 151종
- ◆ 사료·축사관리농약 등 비의도적 오염실태조사 실시, 적합 확인
 - * 사료 400점(국내 150점, 수입 250점) 대상 농약성분 330종 분석 추진
 - * 식육1,350건(농 약성분 61종), 식육란1,250건(34종), 원유 300건(9종)



’23년도 추진계획

- ◆ ’24년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외)품 확충과 안전사용기준 재정비 완료
 - 잔류성 시험조사(59품목) 및 안전사용기준 재정비로 농가의 약품사용 환경 정비·구축
- ◆ ’23년 상반기까지 이해당사자(축산농가, 수의사, 유통업) 집중 지도·교육*, 하반기부터 소비자 홍보 병행
 - 축산농가 의무교육 시 PLS 교육 강화 및 축산업 전반에 교육·홍보
 - 축산 및 생산자협회 행사 시 합동 교육 및 홍보
 - 소비자 대상 제도 시행 및 국산 축산물 안전성 향상 관련 홍보

<협조요청사항>

- ◆ (축산농가)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약품 등의 사용 기준 준수
- ◆ (축산농가) 동물약품 사용시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을 기록 및 1년간 기록 보관

참고 -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잔류물질 관리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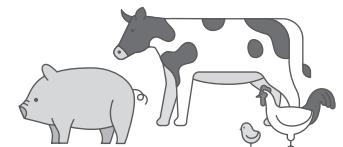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축·수산물에 대해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설정 운영

- 잔류물질 허용기준 설정 물질(동물약품, 20종 ; 농약성분, 140종), 금지물질(동물약품, 26종), 면제물질(동물약품, 177종 ; 농약성분, 61종) 구분·운영
- 잔류물질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은 ①CODEX 기준, ②유사축종기준 적용(동물약품)/ CODEX 기준 등 검토 후 적·부 판정(농약성분)

◆ (주요 외국) 우리와 유사 체계 운용중(기준설정물질, 금지물질, 면제물질), 自國 기준이 없는 성분은 일률기준(0.01mg/kg) 또는 불검출 기준 적용

- (우리나라) 모든 농산물에 농약 PLS 시행(2019.1)
- (일본) PLS 제도(’06년 시행), 일률기준(0.01mg/kg) 적용
- (EU) PLS 제도와 ‘Zero Tolerance’ 혼용(’08년 시행), 농약(일률기준, 0.01mg/kg), 동물약품(불검출, zero tolerance) 구분·적용
- (미국·호주) ‘Zero Tolerance’ 제도(’85년 시행), 불검출 기준 적용

* 불검출(zero tolerance): 시험법의 정량한계 적용



국내·외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기준설정 현황 (’22.11월 기준)

	한국	CODEX	일본	EU	미국
<동물약품>	413	85	267	671	129
잔류허용기준	210	68	171	140	103
사용금지	26	13	20	9	15
면제물질	177	4	76	522	11
<농약성분>	201	189	437	651	584
잔류허용기준	140	189	437	499	213
면제물질	61	0	0	152	371

* 일본은 동물약품·농약성분 구분없이 잔류물질로 관리

** 농약 성분은 국제적으로 금지물질을 별도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음

7개 시도 예비대상자 32호 선정 빠르면 6월말 저탄소 인증 축산물 출하



올해 처음으로 한우 거세우를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2023년 상반기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농가 모집’ 결과 35호가 신청했고 예비대상자는 32호가 선정됐다. 예비대상자가 선정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은 저탄소 축산물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인증을 위한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등 현장에서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 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가 소비자에게 첫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참여농가 실질적 지원 뒷받침돼야 사업확대
생산 + 유통·소비 관련정책 함께 추진돼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월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하여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000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축산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발굴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장내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CH₄)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₄) 및 아산화질소(N₂O)로 구분된다. 2020년도 기준으로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은 973만톤(CO₂eq)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약

축산분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톤 CO₂eq)

구분	1990	2000	2010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90년 대비	'19년 대비
합계	5.8	7.3	9.1	9.1	9.4	9.5	9.7	67% ↑	2% ↑
A. 장내발효	3.0	3.4	4.3	4.4	4.5	4.6	4.7	57% ↑	2% ↑
B. 가축분뇨처리	2.8	3.9	4.8	4.7	4.9	4.9	5.0	79% ↑	2% ↑



1.48%(농업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대비 67.2%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감안하면 축산분야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썬(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 중에서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월령 및 도체중 등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이력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며,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는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하여 시중에 판매되며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업하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 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정책 디자인단에 참여했던 한국소비자연맹 김지현 팀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저탄소 한우가 생산되면 마블링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7개 시도 32호 농가 예비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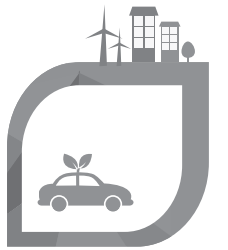
축평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 4월 3일까지 신청서, 사육현황보고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축산업 허가증,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등을 받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35호가 신청해 사전인증이 없는 농가 3호가 탈락하고 32호가 예비대상자로 선정됐다.

축평원은 이 과정에서 유기축산물·무항생제·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깨끗한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을 1개 이상 사전에 지정받은 농가 중 전년도 출하실적(거세우)이 20마리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마릿수가 100마리 이상이고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며, 인증조건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등 신청인의 인증조건 적합성 여부를 검토했다.

선정된 32호는 지역별로 경기 4호, 강원 2호, 충북 2호, 전남 10호, 전북 4호, 경북 7호, 경남 3호 등 7개 시도에서 나왔다. 선정 결과가 농가에 개별 통지된 가운데 5월 26일까지 인증취득 지원과 관련해 사업참여자 교육 컨설팅과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6월 5일 저탄소 축산물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경북의 한 농가는 “개월수를 당겨 출하하게 되면서 등급출현율과 도체중, 등심단면적의 축소 등이 예상돼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그린어쓰’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증취득시 농가는 인증취득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과 인증심사 대응에 관해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일련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인증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





된 농가는 빠르면 6월 말경 저탄소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대형유통업체 관련제품 개발 검토 소비자도 긍정적 시선

최근 대형유통업체들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한우 바이어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상품화가 가능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로컬푸드,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소비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에 따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일회용품 줄이기, 지구 온도 낮추기, 탄소 중립 등 환경을 생각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단독 판매, 한정 수량, 신제품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만큼 저탄소 축산물도 처음 듣고 보기 때문에 구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인 스스로 탄소를 줄이고자 생산한 한우 등의 스토리를 붙인다면 지속적인 판매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탄소 축산물의 경우 출시 초반에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맛이기 때문에 품질과 맛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온라인 플랫폼 담당자는 “한우의 경우 주로 30개월령 이상이 도축되는데 일정 사육기간이 도래해야 마블링이 형성되고 품질과 맛이 보장된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다”며 “사육 월령을 줄이거나 저메탄 사료를 급이했을 경우 맛과 품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없을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대해 소비자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축산 부분에서도 저탄소 인증 등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축산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한우업계는 실효성 있는 정책실현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2050탄소중립’ 계획에도 부합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처럼 정책만 앞세우고 흐지부

지되는 제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직불금 도입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 생산기반 위한 지원 뒤따라야

올해 처음으로 한우 거세우를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도입하고자 희망 농가를 접수하고 이들을 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하지만 참여 농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없이 본 사업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기축산 농가가 많지 않은 이유는 관련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농가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졌던 축산물 관련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탄소저감을 위해 앞장서는 농가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과도하게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브랜드를 개발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관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저탄소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고 소비자들의 관심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2025년까지 탄소저감 사료개발 연구 2030년까지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 확립 방침



한우동향분석 2023.5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한우사육】 2023년 4월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3.09% 증가, 전월 대비 1.04% 증가
- 가임암소 전년 동월 대비 2.24% 증가, 전월 대비 0.06% 감소
- 연령별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 4.68% 감소, 1세~2세 0.30%, 2세 이상 2.67% 증가



【등급판정】 4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 74.1%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증가
- 1**등급 : 24.3%, 1*등급 : 24.6%, 1등급 : 25.1%



【도매 및 산지가격】 4월 한우 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큰 소 및 (6~7개월령)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6~7개월령) 송아지 상승

- 한우 큰 소(600kg) 암소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6.9% 하락, 전월 대비 1.1% 하락(수소는 24.3% 하락, 3.1% 하락)
-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7.0% 하락, 전월 대비 9.1% 상승(수송아지는 10.7% 하락, 11.8% 상승)



【배합사료·정액판매】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4월 배합사료 누적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2.41% 증가
- 4월 정액 누적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8.54% 감소



【쇠고기 수입】 4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 전월 대비 4.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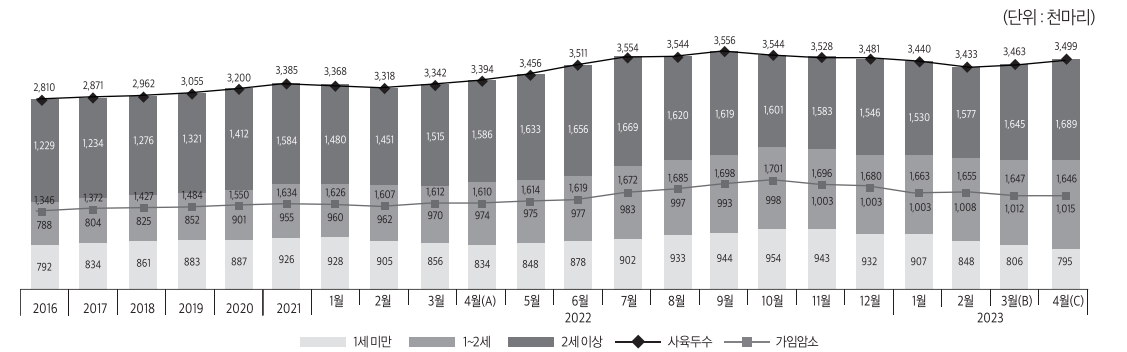
- 전월 대비 냉동육 수입 3.9% 감소, 냉장육 7.5% 감소



1. 한우 사육 동향

◎ 2023년 4월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한우 수급 안정화 및 가격 하락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농가 자율 감축 및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한우 사육마릿수는 349만 9천 마리로 전년 동월(339만 4천 마리) 대비 3.09%(10만 5천 마리) 증가, 전월(346만 3천 마리) 대비 1.04%(3만 6천 마리) 증가
- 가임암소는 164만 6천 마리로 전년 동월(161만 0천 마리) 대비 2.24%(3만 6천 마리) 증가, 전월(164만 7천 마리) 대비 0.06%(1천 마리) 감소
- 연령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4.68%(3만 9천 마리) 감소, 1~2세는 0.30%(3천 마리), 2세 이상은 2.67%(4만 4천 마리) 증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그림 1】한우 사육 두수 현황

- 사육 농장수는 86,145농장으로 전년 동월(89,242농장) 대비 3.47%(3,097농장) 감소, 전월(86,524농장) 대비 0.44%(379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마릿수는 40.6마리로 전년 동월(38.0마리) 대비 6.84%(2.6마리) 증가, 전월(40.0마리) 1.50%(0.6마리) 증가

【표 1】한우 사육 현황

(단위: 호, 천마리, %, 마리)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89,423	3,312	1,578	88.2	873	931	1,508	36.9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37.4
	4월(A)	89,343	3,394	1,610	87.7	834	974	38.0
	5월	89,242	3,456	1,614	89.5	848	975	38.7
	6월	89,153	3,511	1,639	78.6	878	977	39.4
	7월	89,016	3,554	1,672	66.5	902	983	39.9
	8월	88,633	3,544	1,685	46.8	933	991	40.0
	9월	88,471	3,556	1,698	41.2	944	993	40.2
	10월	88,137	3,544	1,701	34.1	945	998	40.2
	11월	87,784	3,528	1,696	32.4	943	1,003	40.2
	12월	87,470	3,481	1,680	31.7	932	1,003	39.8
2023	1월	87,160	3,440	1,663	60.1	907	1,003	39.5
	2월	86,861	3,433	1,655	58.8	848	1,008	39.5
	3월(B)	86,524	3,463	1,647	57.4	806	1,012	40.0
	4월(C)	86,145	3,499	1,646	67.4	795	1,015	40.5
증감률	전년동월(C/A)	△3.47	3.09	2.24	△50.07	△4.68	4.21	6.84
	전월(C/B)	△0.44	1.04	△0.06	17.42	△1.36	0.30	2.67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2023년 4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4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는 69,855마리로 전년 동월(68,170마리) 대비 2.5%(1,685마리) 증가, 전월(77,186마리) 대비 9.5%(7,331마리)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52.2%, 수소 0.6%, 거세우 47.2%

* 전월대비 : 암소 0.4%p↑, 수소 0.1%p↑, 거세우 0.4%p↓, 거세울 0.1%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 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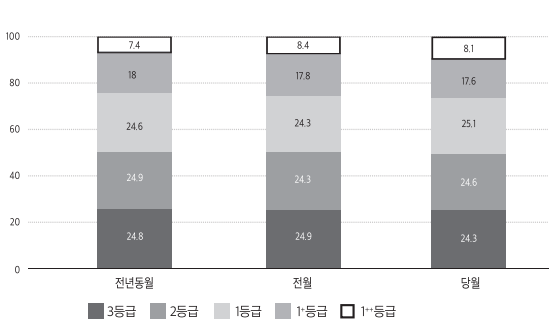
(단위 : 마리,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울
전년누계 ('22.1.~4월)	272,212	122,139	2,332	147,741	98.4
	100.0	44.9	0.9	54.3	
금년누계 ('23.1.~4월)	299,630	150,227	1,932	147,471	98.7
	100.0	50.1	0.6	49.2	
전년동월 ('22.4월)	68,170	32,846	526	34,798	98.5
	100.0	48.2	0.8	51.0	
전월 ('23.3월)	77,186	40,001	407	36,778	98.9
	100.0	51.8	0.5	47.6	
당월 ('23.4월)	69,855	36,466	387	33,002	98.8
	100.0	52.2	0.6	47.2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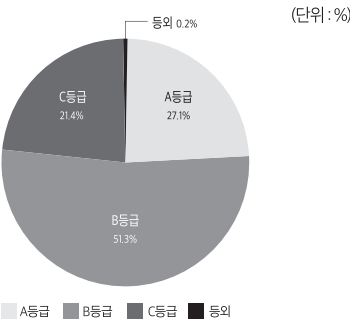
◎ 4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4.1%, 전년 동월 대비 1.6%p 감소, 전월 대비 0.6%p 증가

- 4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4.3%, 1*등급 24.6%, 1등급 25.1%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3.5%) 대비 0.6%p↑, 1**등급 0.6p↓, 1*등급 0.3%p↑, 1등급 0.8%p↑
- 전년 동월(75.7%)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6%p↓, 1**등급은 0.5%p↓, 1*등급 0.3%p↓, 1등급은 0.5%p↑
- 전년 누계(75.7%)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1%p↓, 1**등급은 0.4%p↓, 1*등급 0.9%p↓, 1등급은 0.1%p↑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단위 : %)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2		869,147	25.6	25.3	24.3	75.2	17.0	7.6	27.0	52.0	20.7	0.2
2022	4월(A)	68,170	24.8	24.9	24.6	74.4	18.0	7.4	25.6	52.6	21.6	0.2
	1~4월(B)	272,212	25.7	25.6	24.4	75.7	17.0	7.1	24.1	52.4	23.3	0.2
2023	'22.3월(C)	77,186	24.9	24.3	24.3	73.5	17.8	8.4	27.3	51.2	21.1	0.3
	4월(D)	69,855	24.3	24.6	25.1	74.1	17.6	8.1	27.1	51.3	21.4	0.2
	1~4월(E)	299,630	25.3	24.7	24.5	74.6	17.2	7.9	26.8	51.4	21.6	0.3
전월대비(D-C)		△7,331	△0.6	0.3	0.8	0.6	△0.2	△0.3	△0.2	0.1	0.3	△0.1
전년동월대비(D-A)		1,685	△0.5	△0.3	0.5	△0.3	△0.4	0.7	1.5	△1.3	△0.2	0.0
전년누계대비(E-B)		27,418	△0.4	△0.9	0.1	△1.1	0.2	0.8	2.7	△1.0	△1.7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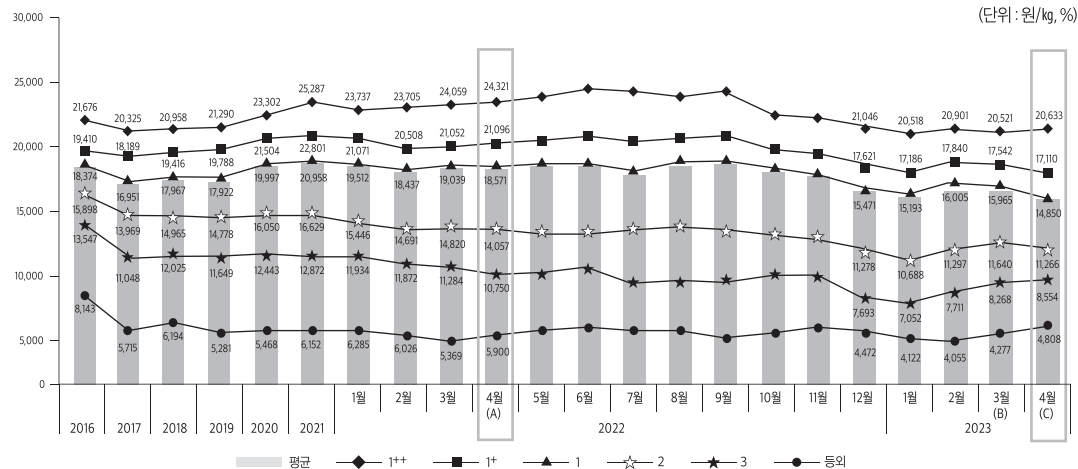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2023년 4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 4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4,850원/kg)은 전년 동월(18,571원/kg) 대비 20.0%(3,721원/kg) 하락, 전월(15,965원/kg) 대비 7.0%(1,115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5,729원/kg)은 전년 동월(19,312원/kg) 대비 18.6%(3,583원/kg) 하락, 전월(16,126원/kg) 대비 2.5%(397원/kg) 하락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3]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 4월 한우 산지가격 큰 소 및 (6~7개월령)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큰소 하락, (6~7개월령) 송아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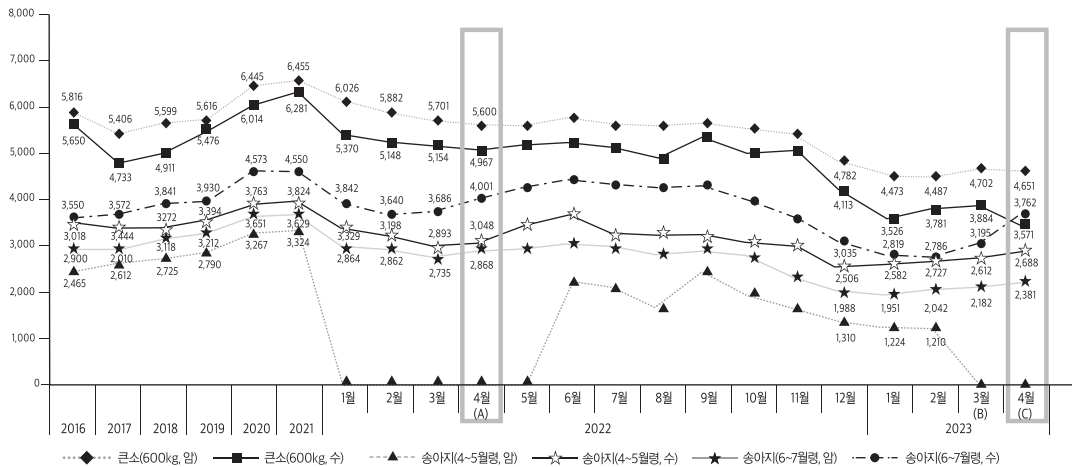
- 4월 큰 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4,651천원으로 전년 동월(5,600천원) 대비 16.9%(949천원) 하락, 전월(4,702천원) 대비 1.1%(51천원) 하락
- 수소의 경우 3,762천원으로 전년 동월(4,967천원) 대비 24.3%(1,205천원) 하락, 전월(3,884천원) 대비 3.1%(122천원) 하락
- 4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381천원으로 전년 동월(2,868천원) 대 비 17.0%(487천원) 하락, 전월(2,182천원) 대비 9.1%(199천원) 상승
- 수송아지의 경우 3,571천원으로 전년 동월(4,001천원) 대비 10.7%(430천원) 하락, 전월 (3,195천원) 대비 11.8%(376천원) 상승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원/kg, %)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25,287	22,801	20,958	16,629	12,872	6,152	21,155
2022	4월(A)	24,321	21,096	18,571	14,057	10,750	5,900	19,312
2023	3월(B)	20,521	17,542	15,965	11,640	8,268	4,277	16,126
	4월(C)	20,633	17,110	14,850	11,266	8,554	4,808	15,729
증감율	전년동월(C/A)	△15.2	△18.9	△20.0	△19.9	△20.4	△18.5	△18.6
	전월(C/B)	0.5	△2.5	△7.0	△3.2	3.5	12.4	△2.5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그림 4] 한우 산지가격 추이(전국)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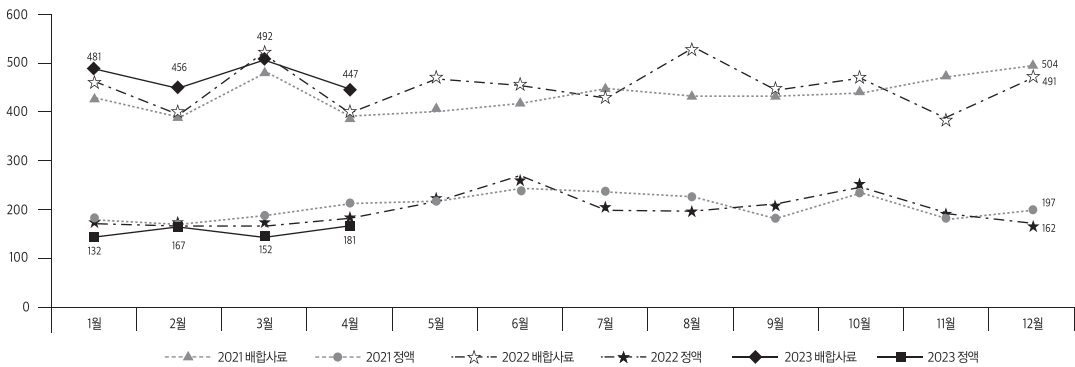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6,455	6,281	3,324	3,824	3,629	4,550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	5,701	5,154	-	2,893	2,735	3,683
	4월(A)	5,600	4,967	-	3,048	2,868	4,001
	5월	5,521	5,163	-	3,379	2,907	4,208
	6월	5,753	5,193	2,278	3,547	2,994	4,407
	7월	5,551	5,053	2,050	3,158	2,898	4,266
	8월	5,511	4,801	1,630	3,217	2,776	4,210
	9월	5,621	5,317	2,400	3,147	2,859	4,251
	10월	5,538	4,944	2,001	3,045	2,686	3,904
	11월	5,391	5,016	1,553	3,018	2,329	3,429
	12월	4,782	4,113	1,310	2,506	1,988	3,035
2023	1월	4,473	3,526	1,224	2,582	1,951	2,819
	2월	4,487	3,781	1,210	2,727	2,042	2,786
	3월(B)	4,702	3,884	-	2,612	2,182	3,195
	4월(C)	4,651	3,762	-	2,688	2,381	3,571
증감율	전년동월(C/A)	△16.9	△24.3	-	△11.8	△17.0	△10.7
	증감율 전월(C/B)	△1.1	△3.1	-	2.9	9.1	11.8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2023년 4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4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47천 톤(당해년도 누적 1,866천 톤)으로 전년 동기간 누적 생산량 (1,822천 톤) 대비 2.41%(44천 톤) 증가
- 4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82천 str(당해년도 누적 632천 str)로 동기간 누적 판매량(691천 str) 대비 8.54%(59천 str) 감소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그림 5]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04	5,387
	2022	473	417	514	418	485	453	436	529	458	478	409	491	5,561
	2023	481	446	492	447									1,866
정액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197	2,374
	2022	171	171	171	183	206	233	199	192	202	220	176	162	2,281
	2023	132	167	152	181									632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5. ○ 2023년 4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4월 쇠고기 수입량은 4만 1,615톤으로 전년 동월 3만 6,355톤 대비 14.5% (5,260톤) 증가, 전월 4만 3,632톤 대비 4.6%(2,017톤) 감소
- 전월 대비 냉동 쇠고기 3.9%(1,360톤) 감소, 냉장 쇠고기 7.5%(657톤) 감소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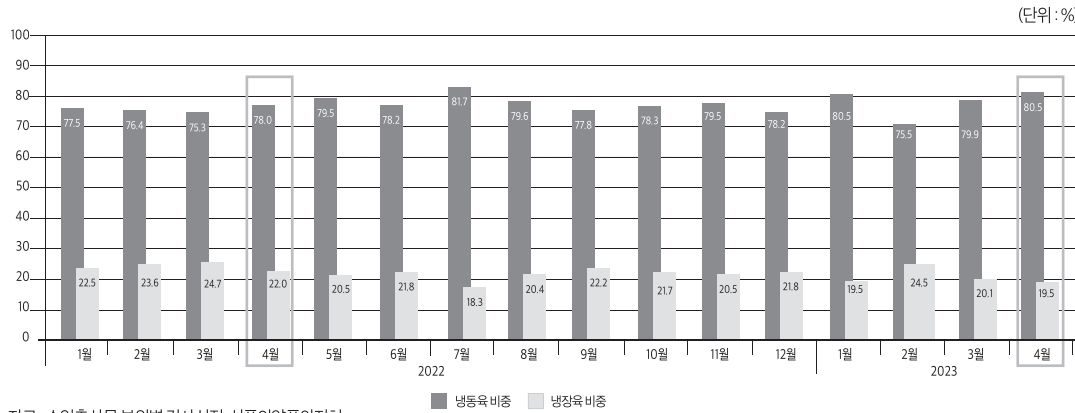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5월	44,669	35,532	9,137	16,877	9,480	4,641	3,490	10,181	24,545	13,732	6,392
	6월	37,607	29,390	8,217	15,550	6,572	3,715	3,192	8,578	20,800	11,886	4,921
	7월	43,249	35,349	7,900	16,485	7,127	4,039	3,724	11,874	23,725	14,837	4,687
	8월	42,067	33,486	8,581	14,041	6,418	4,681	4,186	12,741	21,558	16,452	4,057
	9월	44,062	34,293	9,769	15,137	5,904	5,168	4,172	13,681	23,894	16,036	4,132
	10월	36,159	28,305	7,854	13,245	5,218	4,209	2,975	10,512	19,297	14,391	2,471
	11월	36,726	29,203	7,523	14,530	6,356	4,323	3,339	8,178	22,093	11,302	3,331
	12월	42,367	33,141	9,226	15,533	7,474	5,079	3,118	11,163	25,504	15,513	1,350
	누계	476,754	373,723	103,031	175,626	84,215	54,241	41,152	121,520	265,464	162,084	49,206
2023	1월	35,649	28,695	6,955	11,685	5,608	5,619	3,197	9,540	17,022	14,187	4,440
	2월	35,118	26,500	8,618	13,171	5,511	5,129	2,806	8,501	21,270	10,317	3,531
	3월	43,632	34,874	8,758	15,822	6,523	5,944	3,958	11,385	23,952	15,077	4,603
	4월	41,615	33,514	8,101	13,263	6,438	5,909	4,073	11,932	20,291	17,999	3,325
	누계	156,014	123,583	32,432	53,941	24,080	22,601	14,034	41,358	82,535	57,580	15,899
증감률	전년동월	14.5	18.1	1.4	△8.2	△13.5	45.1	38.5	60.1	△4.0	82.7	△38.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고

- 4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앞다리 45.1%(1,836톤), 등심 38.5%(1,133톤), 기타 60.1%(4,478톤) 증가, 갈비 8.2%(1,186톤), 양지 13.5%(1,001톤) 감소
- 4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미국산이 15.3%(3,661톤) 감소, 호주산 19.4%(2,922톤) 증가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6]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비육 후기 입담음 현상 대책

소의 자질-계절-환경조건 따라 다르지만
비육후기 배합사료 1일 섭취량 8kg이하
‘입담음 현상’ 판단...원인파악 후 대처를



1. 입담음 현상 판단 기준은?

국내 사료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거세우 한우 사료 급여 프로그램에 의하면
거세우 출하 30개월 기준으로 총 배합
사료 급여량은 5,500kg, 조사료 급여량
은 2,000kg 전후를 권장하고 있다.
비육 후기(마블링단계)에는 생후 23개
월 이후부터 출하 때까지 1일 10kg을 기
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사육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배합사료 기준으로 평균
9.7kg 정도이다.
물론 소의 자질과 계절 및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비육 후기
배합사료 1일 섭취량이 8kg 이하로 떨어
질 때는 입담음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
할 수 있다.

2. 입담음 현상의 주요 원인

입담음 현상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 가. 비육우의 혈통 등 자질과 능력
- 나. 소의 체형 만들기, 제 1위 만들기
가 불충분(송아지, 입식 후 2~3개
월간의 사양관리 실패)
- 다. 비타민 A 결핍에 의한 입담음 현
상(주로 23개월령 전후)
- 라. 반추위 발효 이상
- 마. 요석증, 고창증 등의 질병에 의한
입담음 현상
- 바. 환경(물, 환기, 축사 온도 등)
- 사. 기타



3. 주요 원인에 대한 세부 내용

가. 비육우 혈통 등 자질 및 능력

비육우의 유전적 자질에 의해서 입담음 현상이 개체 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능력이 우수한 개체가 반드시 섭취 능력이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입식한 소의 섭취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후사료 뿐만 아니라 조사료를 포함한 사료의 섭취 형태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음으로 영양 성분 함량이 높은 조사료의 급여가 바람직하다. 또한 대두박을 서서히 증량하여 500g 정도 급여하는 것도 소의 체형 만들기에 중요하다. 비육우는 칸마다 사료 급여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의 능력에 따라 1일 사료 급여량을 8kg, 9kg, 10kg 칸을 정하여 사육한다. 사료를 소의 능력 이상으로 급여하면 당연히 소는 일시적으로는 사료를 섭취하여도 점차 남기게 된다. 사료를 먹는 양은 소의 능력이므로 송아지 입식 후 소를 잘 관찰하면서 사료 급여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이 비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급여 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한다.

나. 소의 체형 및 제1위 만들기 문제(송아지, 입식 후 2~3개월간의 사양관리 실패)

송아지 구입 시 체중을 증시하기 때문에 번식 농가에서는 농후사료에 편중되기 쉽다. 이런 이유로 송아지는 제1위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 입담음 현상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송아지때부터 조사료 중심에 의한 급여 방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송아지 입식 후 2~3개월간은 조사료를 우선으로 사료로 급여 하는 방법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조사료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몇 회로 나누어 급여한다.” “기호성이 좋은 조사료를 준비한다.” “조사료를 절단한다.” “가능한 다양한 조사료를 급여한다.”등이 기본이다. 이 시기는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량 합계가 8~9kg 밖에 되지 않

다. 반추위 발효 이상

비육우는 농후사료 다급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발효 상태가 되기 쉽다. 농후사료 다급으로 비육 시킬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철저한 체형 만들기과 배통 만들기이다.

라. 요석증, 고창증 등의 질병에 의한 입담음 현상

요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음수량의 확보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음수량이 제한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마. 환경(물, 환기, 축사 온도 등)

입담음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음수량이 적으면 사료 섭취량 뿐만 아니라 증체율과 사료 효율도 저하된다. 소는 농장의 바닥이 좋아야 편히 쉴 수 있어 출하 성적이 좋은 농가일수록 바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햇빛 차단도 중요한데 축사의 서쪽에 나무를 심어 햇빛에 대한 대책을 하고 지붕에 흰 페인트를 칠하거나 지붕에 살수장치를 부착하는 방법도 농장 환경 개선 방법으로 권장된다.

4. 입담음 현상 발생 시 조치 방법

우선 입담음 현상이 발견 된다면 입담음

현상이 소 전체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의 소에서만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료를 급여하고 나서 한 시간 후에 정면에서 소의 복부(제1위) 팽창 상태를 살펴본다. 복부가 팽창되어 있는 소는 사료를 나뭇대로 섭취한 소이나 복부가 위축되고 원기가 없어 보이는 소는 잘 관찰하여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소의 능력을 별개로 한다면 제1위 만들기의 실패와 비타민 A 결핍증, 반추위 발효 이상이 사양 관리에서 본 입담음 현상의 3대 원인이다.

입담음 현상에 대한 대책은 ①혈통과 육성기부터 배통 만들기, ②비타민 A 대책과 반추위 발효의 조정, 질병 대책, ③사료조와 수조의 관리, 조사료, 첨가제의 활용도 중요하다. 사육 현장에서는 ③번으로도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담음 현상의 경중을 잘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질병이 원인인 경우에는 수의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수의칼럼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수의학 박사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한우 농가 차단방역 요령

2019년 1월 3건 발생이후 4년 4개월만인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와 증평의 한우와 염소 사육 농가에서 구강 및 유두 수포, 침흘림, 비강 또는 구강 상피세포 탈락, 구강 궤양 등의 증상인 구제역이 총 11건 발생했다. 사료값 고공행진과 한우 가격 하락에 허덕이고 있는 한우 농가에 커다란 시름과 탄식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유두 수포 및 궤양

정부 당국에서는 이번 구제역 발생 농장 대부분이 백신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긴급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하는 한편 항체 양성을 미흡 농장은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항체 양성을 모니터링 물량을 현재 4%(사육두수 대비)보다 2배(8%)로 늘리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우제류 52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중지 연장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우제류 가축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하는 등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해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을 실시했다. 따라서 한우 농가에서는 구제역의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과 외래유입 전염병의 차단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과거 국내 구제역의 발생 현황

2010년 경북 안동지역 구제역 발생 이후에 전국적으로 백신접종 의무화가 이뤄진 이후 구제역이 2014~ 2015년 188건, 2016년 21건, 2017년 9건, 2018년 2건, 2019년 3건으로 간헐적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우를 비롯한 우제류 가축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소독과 아울러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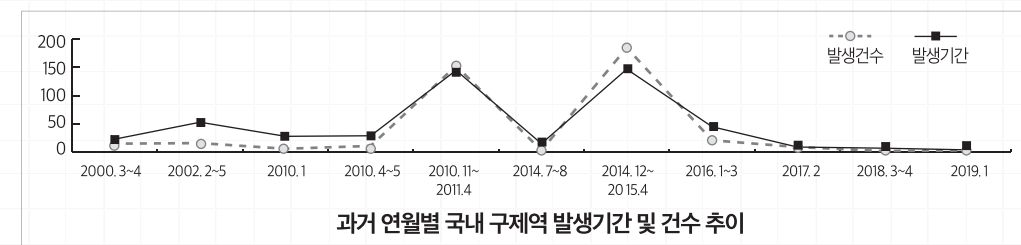
2. 구제역의 개요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 등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중증의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된 소의 전형적인 증상은 2일부터 8일의 잠복기를 거쳐 최초 발열, 식욕부진으로 이어져 침흘림, 혀나 잇몸, 발굽사이 등의 수포형성으로 대부분의 경우 회복하나, 바이러스의 배설이 지속된다.

[표 1] 과거 구제역 발생 현황

연월	발생기간 (일)	발생 건수	발생지역	혈청형	살처분		
					농가수	두수	재정소요(원)
2000.3~4	23	15	경기 파주, 화성, 용인, 충남 홍성, 보령, 충북 충주	O형	182	2,216	2,725억
2002.2~5	53	16	경기 안성, 용인, 평택, 충북 진천	O형	162	160,155	1,058억
2010.1	28	6	경기 포천, 연천	A형	55	5,956	272억
2010.4~5	29	11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O형	395	49,874	1,040억
2010.11~2011.4	145	153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O형	6,241	3,479,962	2조7,383억
2014.7~8	15	3	경북 의성, 고령, 경남 합천	O형	3	2,009	17억
2014.12~2015.4	147	185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O형	196	171,128	635억
2016.1~3	45	21	전북 김제, 고창, 충남 공주, 천안, 논산, 홍성	O형	23	33,073	126억
2017.2	9	9	충북 보은, 경기 연천, 전북 정읍	O, A형	21	1,392	98억
2018.3~4	7	2	경기 김포	A형	10	11,726	64억
2019.1	4	3	경기 안성, 충북 충주	O형	29	2,272	126억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가. 원인체 및 발생요인

구제역바이러스에 있어서는 O, A, C, Asia1, Southern African Territories (SAT)1, SAT 2, SAT 3으로 불리는 7종류의 혈청형이 존재하나, 본 병의 임상증상에 의해 혈청형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혈청형 C 및 Asia1의 항원성은 비교적 균일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바이러스주는 pH7.0~8.5의 범위 및 저온조건하에 있어서도 안정되나, 기타 조건하에서는 빠른 감염성을 잃는다. pH 4에서 15초간, pH 6에서는 2분만에 불활성화 되는데, pH 7에서는 수 주간 생존한다. pH의 변동과 가열에 대한 저항성은 바이러스의 타입과 균주에 의해 다르다.

나. 감수성 동물 및 감염경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수성 동물은 소, 돼지 및 면·산양 등의 가축 동물 및 70여종 이상의 야생동물을 포함한 우제류동물이 해당된다. 구제역은 감염력이 대단히 높은 질병으로 농장 내, 주변 농장 및 새로운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다양한 전파양식이 있다. 주요한 감염경로는 공기감염으로 바이러스는 호흡기점막에 침입하며, 사료 등에 바이러스가 부착하여 경구감염을 일으키는데, 이는 편도 등으로부터 바이러스는 감염이 일어난다. 또한 수 포액에는 다량의 바이러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편도 등이 수포액에 접촉하면 접촉감염이 일어난다.

- 감염동물과 감수성 동물과의 직접 접촉
- 오염된 축산식품을 포함한 돼지에 잔반의 급여
- 에어로졸에 의한 확산



다. 주요 감염경로

공기감염의 최대 원인으로 되는 호기에 함유된 바이러스의 양은 소에서 매분 102.2(약 300) 감염단위, 돼지에서는 105.4(약 730,000) 감염 단위로 돼지가 소에 비해 1,000배 이상의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인후두 분비액에서는 소는 530일 이상, 양에서는 1년까지도 바이러스가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1) 호흡기 감염

호흡기계는 반추동물의 주요한 감염

경로이며, 특히 소량의 바이러스 양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 오염된 에어로졸(aerosol)은 호기에 의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나, 집유탱크로부터의 배기, 압력 호스 등의 사용에 의해 물보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2) 경구 감염

반추동물은 자연조건하에서는 경구적으로 감염하는 것은 거의 없다.

(3) 창상 감염

바이러스는 피부나 점막의 창상을 통해서도 감염할 수가 있으며, 창상은 조사료 급여에 있어 풀의 종류, 착유기에 의한 외상, 소를 보정시에 발생하는 발굽의 상처 등이다.

(4) 인공수정

정액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감염된 종모우는 회복하여도 사용 하지 않는다.

[표 2] 소로부터 바이러스의 배출량

분비 배설물	최고 역가 (log 10)	바이러스가 검출된 최장시간(일)
호기	2.2/min	5
침(타액)	8.5/ml	14
콧물(비점)	7.7/g	7
인후두 분비물	7.7/ml	>530
눈물	7.6/ml	>3
우유	5.5/ml	9
정액	6.2/ml	10
질 분비물	3.3/샘플	10
오줌	4.9/ml	7
똥(분)	2.0/g	15
수포액	10.0/ml	

[표 3] 임상증상 및 확인된 소 구제역병변의 비율 (2010. 일본 미야자키현)

증상 및 병변	발열	포말성 타액 (침)	혀	구강	비강	유두	발굽
비율(%)	88	94	86	91	72	9	1

[표 4] 구제역과 감별해야 할 질병 (농림축산검역본부, 2002)

축종	질병 순위
소	BVD[소바이러스설사병]>유두종>가성우두>IBR[소전염성비기관염]>IBR+BVD>외상>기타



라. 바이러스의 배출

바이러스는 직경이 21~25nm로 전신의 피부, 점막에서 증식하며, 모든 분비물, 배설물에 존재하며 소의 1일 바이러스 배출량은 105ID50(돼지는 108ID50)이다.

마. 구제역의 예방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병원체의 존재, 질병에 걸리는 감수성 동물의 존재, 감염경로의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국내 과거 구제역의 발생사례에서와 같이 병원체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 추운 겨울철에 축사 내·외부에 대량의 생석회가 살포됐으며, 많은 소, 돼지 등의 살처분은 감염원 및 감수성 동물을 제거했다.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동제한 및 금지 조치가 동시에 이뤄졌는데, 이는 3가지 중 1가지라도 없다면 감염이 이뤄지지 않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체의 존재를 없애는 작업인 소독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이나 알칼리에 대해 감수성이 높고, 특히 산에 대해서는 pH 6.5이하에서 불활화되어 감수성이 높다.

이상적인 소독약은 목표 병원체에만 작용하여 잔류가 없고 금속부식성 등이 없으며, 사람이나 동물에의 영향이 없고, 소독면을 균일하게 소독하는 것이 가능하고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우 농가들은 아래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 ① 구제역 발생정보 수집 및 파악
- ② 농장의 위생관리 구역 설정을 통한 예방대책의 강화
- ③ 효과적인 소독 실시
- ④ 매매일의 우군 건강관찰 철저
- ⑤ 소의 이동, 질병발생 등의 기록 철저

3. 구제역의 차단방역요령

가. 방역의 종류

- 차단방역 : 질병이 농장내로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
- 장내방역 : 농장내부의 상존 병원체와 감염기회를 줄이는 것
- 도입축의 방역관리 : 유전개량을 위해 또는 갱신을 위해 도입하여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 농장의 차단방역

전염병은 한축의 농장내 유입, 가축수송차량, 사료운반차량, 분뇨처리차량 등 또는 사람, 개, 고양이, 설치동물 및 야생동물 등 및 바람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농장 차단방역의 9가지 주안점은 농장의 위치, 사람의 출입통제, 사료공급 및 차량 출입통제, 사료와 물의 질 관리, 재료 준비와 유지관리, 공간 분리, 축사, 소독 프로그램, 처방 및 치료이다.

다. 차단방역을 하는 이유

- 축군 건강의 예방적 접근
- 질병 이환 또는 확산에 따른 축군 위험 저감
- 자본 투자가 아닌 종종 관리 요인만이 요구됨

라. 차단방역의 3요소(IRS)

- I = 격리(Isolation) : 선발 및 검사, 신규입식동물(단일 목장, 병력, 적절한 면역력, 검진, 적절한 크기와 상태) 2-4주간 격리, 동물과의 접촉 최소화
- R = 저항성(resistance) : 적절한 영양관리, 미량의 광물질과 비타민, 휴식, 공기와 물의 질, 면역력
- S = 위생(Sanitation) : 환경, 분뇨

마. 차단방역 요령

>> 도입 및 입식우

소가 농장에 병원체를 가져들어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입시에 충분히 주의한다.

>>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

원칙적으로는 외부인은 농장 출입은 금지하나, 업무상 농장에 출입코자 할 경우에 차량이나 사람은 농장주에 연락하여 차량, 신발의 소독을 한 후에 실시한다.

>> 농장 입구에 간판 설치

농장 입구에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외부 방문자에 대하여 '우리 한우 농장은 방역에 확실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여 주십시오'라는 농장으로부터의 강한 의사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 소독을 위한 석회 살포

차량의 소독을 위해 농장 출입구에 정기적으로 물을 부린 후에 생석회를 평당 1kg의 양으로 충분히 살포한다. 트럭 등의 대형 차량의 타이어를 확실하게 소독하기 위해서는 최저 6m 이상지역에 살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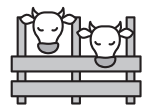
>> 소독조의 설치

축사의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외부 방문자는 물론, 농장주와 관리인도 출입시에는 신발 소독을 한다. 소독약은 흙이나 분변 등이 들어가면 소독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발 바닥에 붙어 오염원을 미리 브러시 등으로 떨어지게 한 다음 소독조에 신발을 담그게 하며, 소독약은 적절하게 교환해준다.

2022년 한우산업 전후방산업 규모



전·후방 전체 산업 규모



13조 2,829억 원

6조 3,890억 원



(도매 및 소매 등)

전방산업
48.1%

후방산업
51.9%

6조 8,938억 원



(사료, 영농자재 등)

한우농가 소득

(전체 한우 관련 산업의 19.2%)



2조 5,512억 원

비육 부문 | 9,582억 원

번식 부문 | 1조 5,929억 원

한우농가 평균 소득



2,917만원 / 월 환산 243만원

※ 23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201만원(9,620원 × 209시간)과 비슷한 수준

한우산업 관련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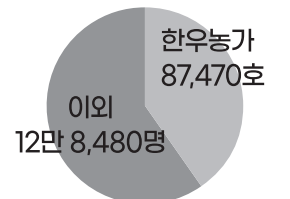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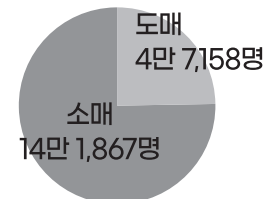
40만 4,976명

전방산업

18만 9,025명

후방산업

21만 5,950명



한우산업 관련 인구



95만 1,694명

전방산업 | 44만 4,210명

후방산업 | 50만 7,484명

(한우농가 이외 30만 1,929명)



2022년 한우산업 전후방산업 규모

2022년
한우 관련 산업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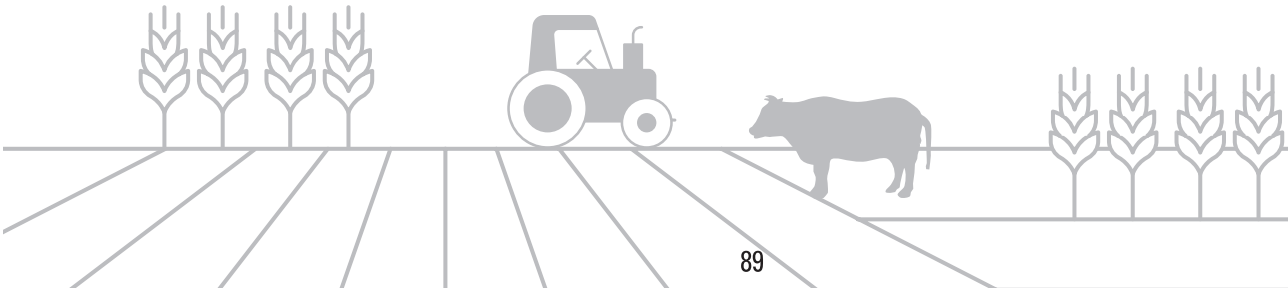
- 2022년도 기준, 한우산업 전·후방 전체 산업 규모는 13조 2,829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방산업 6조 3,890억 원(48.1%), 후방산업 6조 8,938억 원(51.9%) 수준
- 전방산업에는 도축 이후 도매 및 소매단계에 이르기 까지 유통 관련 산업이 주류
- 전방산업 중 도매 마진은 1조 4,329억 원, 소매 마진은 4조 9,037억 원으로, 전체 한우관련 산업 생산액(13조 1,465억 원) 대비 점유비는 도매 10.9%, 소매 37.3% 수준

- 후방산업 규모는 한우 생산액과 동일하며, 이 중에서 한우농가 소득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생산비를 구성하는, 사료, 영농자재 등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몫이 됨
- 한우 생산액 6조 8,938억 원에서, 한우농가 소득은 2조 5,512억 원(37.0%), 생산재 후방산업 생산액은 4조 3,426억 원(63.0%)으로 추산
 - 2022년 한우 생산액 6조 8,938억 원은 22년 한우도축두수 87만 1,577두에 두당 수취가격 7,910천 원을 곱하여 계산
 - 두당 수취가격은, 2022년 한우평균 경락가격(19,018원/kg)에 22년 한우 평균 도체중량(415.9kg)을 곱하여 산출
- 한우 비육우 마리당 사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은 가축비(43.8%)이며, 다음으로 사료비(35.1%), 농구비(2.5%), 영농시설비(2.0%) 순
 - 비육우 사육비에서 가축비는 번식농가의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송아지 사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한우농가 번식 부분의 소득이 됨

2022년 한우관련 산업 규모 추정 (단위: 억원, 명)

구 분		생산액	(구성비)	비 고
후방 산업	한우농가	2조 5,512	19.2	비육 및 번식부문 농가소득
	생산자재 등	4조 3,426	32.7	한우생산액에서 농가 이외 분
	<소계>	<6조 8,938>	<51.9>	22년 도축두수 × 두당 수취가격
전방 산업	도매단계	1조 5,939	12.0	도매 마진
	소매단계	4조 7,951	36.1	소매 마진
	<소계>	<6조 3,890>	<48.1>	도·소매 마진 합계
전체 한우 관련 산업		13조 2,829	100.0	소매단계 총매출

자료: 2021년 축산물생산비통계, 통계청, 22.6./ 2021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축산물품질평가원, 22.4./ 2022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23.3.
 주: 1) 22년 도축두수는 87만 1,577두(농림축산검역본부), 두당 수취가격(7,910천원)은 19,018원(22년 한우 평균 경락가격) × 415.9kg(22년 한우 도체중량) 적용, 결과적으로 22년 한우생산액은, 87만 1,577두 × 7,910천원 = 6조 8,938억 원
 2) 전체 한우관련 산업 생산액은, 22년 한우 생산액 6조 8,938억 원을 농가수취율 51.9%로 나누어 추산하였음, 농가수취율 51.9%는 '2021년 한우고기 유통단계 별 거래가격 자료'를 이용, 최종소비자 가격에서 도매마진 12.0%, 소매마진 36.1%를 제한 나머지 값으로 산출
 3) 한우농가 소득은 2021년 생산비 통계에서 비육우 소득률 13.9%, 번식우 소득률 42.1%를 적용했으며, 번식부문 소득은 비육우 두당 사육비 중 가축비(4,341천원)를 번식부문 수입으로 보고, 이에 번식우 소득률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4) 한우농가 비육부문 소득은 6조 8,938억 원 × 13.9%(비육우 소득률) = 9,582억 원, 번식부문 소득은 비육우 두당 가축비 4,341천원 × 42.1%(번식우 소득률) × 87만 1,577두(22년 도축두수) = 1조 5,929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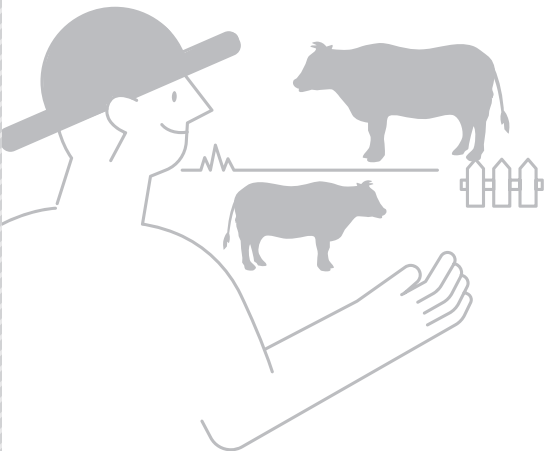
2022년 한우산업 전후방산업 규모

- 2022년 한우농가 소득 2조 5,512억 원은 전체 한우 관련 산업 생산액의 19.2% 수준
 - 한우농가 소득은 비육 및 번식 부문의 합계로, **비육 부문 9,582억 원, 번식 부문 1조 5,929억 원**으로 추산되었음
 - 비육 부문 소득 9,582억 원은 2022년 한우생산액 6조 8,938억 원에 비육우 소득률 13.9%를 곱하여 산출
 - 번식 부문 소득 1조 5,929억 원은, 비육우 두당 가축비 4,341천원을 번식 부문 수입으로 보고, 이에 번식우 소득률 42.1%를 곱하여 마리당 소득을 구한 뒤, 이에 도축 두수 87만 1,577두를 곱하여 산출
 - 추산과정에서 이용한 비육우 소득률, 비육우 두당 가축비 및 번식우 소득률은 '2021년 축산물생산비통계'에서 인용
 - 한우농가 소득 2조 5,512억 원을, 농가 호수 8만 7,470호(2022년 12월)로 나누어 **농가 당으로 환산하면 2,917만 원, 월 243만원** 수준
 - 23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201만원(9,620원 × 209시간)과 비슷한 수준



- 취업자 수를 추산한 결과, **전방산업은 18만 9,025명**(도매업 4만 7,158명, 소매업 14만 1,867명), **후방산업은 21만 5,950명**(한우농가 이외 12만 8,480명)으로 추정
- 한우산업 관련 인구는, 취업자 1세대당 **평균 세대원 수 2.35명**(21년 기준)을 가정하면, **전방산업 44만 4,210명, 후방산업 50만 7,484명**(한우농가 이외 30만 1,929명)으로 추정됨

2022년 한우산업 관련 취업자 수 및 인구 추정



- 2022년 한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와 인구를 추산하면, **총 취업자 수는 40만 4,976명, 관련 인구는 95만 1,694명** 수준
 - 취업자 수 추산은, 한우 관련 전후방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한우농가 소득을 제외한 전·후방 산업 생산액을 22년 식료품 업종 중소기업 연평균 급여액 **3,380만원(중소기업중앙회 조사)**으로 나누어 계산
 - 한우농가 취업자는 '22년 12월 한우농가 호수 (87,470호)와 동일 간주

2022년 한우 관련 산업 취업자 및 인구 수 추정 (단위: 억원, 명)

구 분		생산액	취업자 수	관련 인구
후방 산업	한우농가	2조 5,512	87,470	205,555
	생산자재 등	4조 3,426	128,480	301,929
	<소계>	<6조 8,938>	<215,950>	<507,484>
전방 산업	도매단계	1조 5,939	47,158	110,822
	소매단계	4조 7,951	141,867	333,388
	<소계>	<6조 3,890>	<189,025>	<444,210>
전체 한우관련 산업		13조 2,829	404,976	951,694

자료 : 2021년 축산물생산비통계, 통계청, 22.6. / 2021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축산물품질평가원, 22.4. /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22.6. /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 인구총조사, 통계청
 주 : 1) 취업자 수는 한우관련 산업 생산액을 22년 식료품 중소기업 평균 급여액(3,3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 한우농가는 가축동향조사의 농장주(농가수) 인용
 2) 한우산업 관련 인구는 취업자 수에 21년 평균 가구원 수(2.35명)를 곱하여 산출

2022년 한우사육농가 경영실태 및 농가인식조사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5. 농가경영 특성

1) 주 수입원 출처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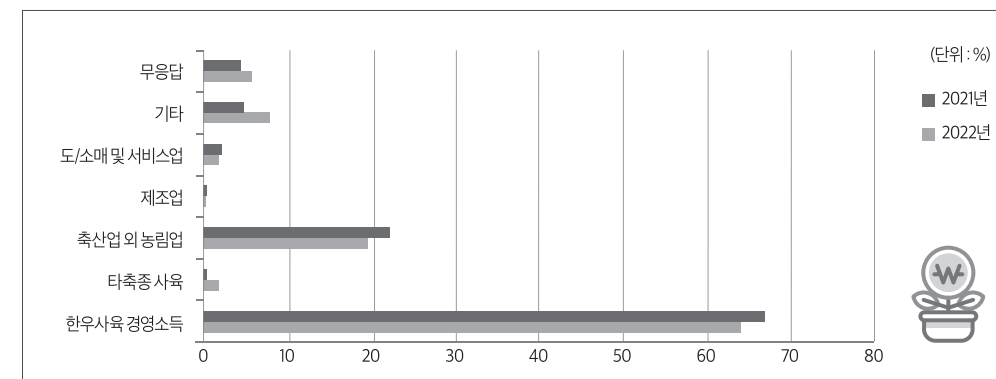
- ◆ 본 경영실태조사에 응답한 321명의 농장주를 대상으로 2022년 농장주의 주 수입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9%(205명)가 한우 사육 경영 소득이라 응답하였으며 19.6%(63명)는 축산업 외 과수 등 농림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응답자가 7.8%(25명)라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타축종 사육의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정액판매업, 인공수정업, 한우수송업 등 한우 산업관련 직종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주 수입원 출처 및 형태

(단위:명,%)

구분		2022년		2021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한우사육 경영소득	205	63.9	360	66.7
	타축종 사육	5	1.6	2	0.4
	축산업 외 농림업	63	19.6	118	21.9
	제조업	0	0.0	1	0.2
	도/소매 및 서비스업	5	1.6	11	2.0
	기타	25	7.8	25	4.6
결측	무응답	18	5.6	23	4.3
합계		321	100.0	540	100.0



2) 한우 사육 관련 부채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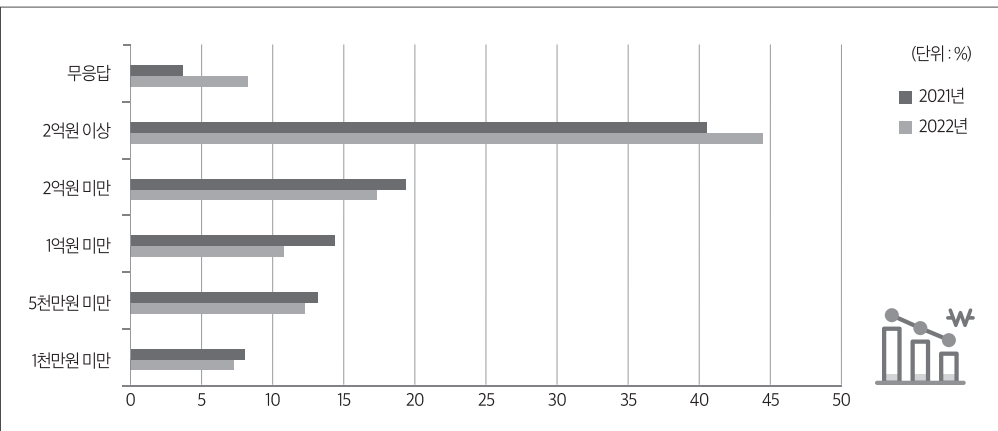
- ◆ 농장별로 한우를 사육함에 있어 발생한 부채 현황을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 2억원 이상(142개 농장, 44.2%), 2억원 미만(53개 농장, 16.5%), 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40개 농장, 12.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35개 농장, 10.9%), 1천만원 미만(24개 농장, 7.5%)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응답이 27개 농장(8.4%)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구간 분포를 살펴볼 때 전년 대비 전 구간 감소하였으나 2억원 이상 구간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우 사육 관련 부채액 구간

(단위:명,%)

구분		2022년		2021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1천만원 미만	24	7.5	44	8.1
	5천만원 미만	40	12.5	72	13.3
	1억원 미만	35	10.9	79	14.6
	2억원 미만	53	16.5	105	19.4
	2억원 이상	142	44.2	220	40.7
결측	무응답	27	8.4	20	3.7
합계		321	100.0	540	100.0



3) 한우 사육 관련 부채 주요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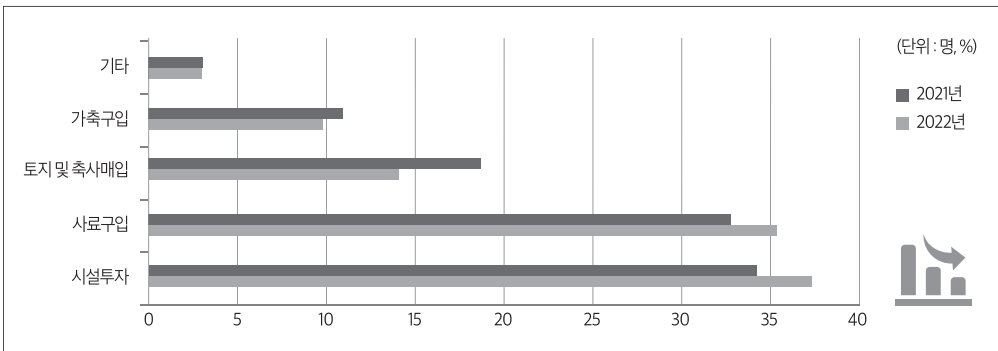
- ◆ 한우 사육 관련 부채 발생 주요 원인인 시설투자(189개 농장, 37.6%), 사료구입(178개 농장, 35.5%), 토지 및 축사매입(71개 농장, 14.1%), 가축구입(49개 농장, 9.8%), 기타(15개 농장, 3.0%)의 순으로 조사되어 2021년 경영 실태 조사 때와 같은 부채 원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부채 발생은 주로 사육환경 구축 및 개선비용이 약 53%에 달하고 있어 한우 사육을 위해서는 자금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한우 사육 관련 부채액 구간(다중응답)

(단위:명,%)

구분	2022년		2021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시설투자	189	37.6	289	34.4
사료구입	178	35.5	277	32.9
토지 및 축사매입	71	14.1	158	18.8
가축구입	49	9.8	92	10.9
기타	15	3.0	25	3.0
합계	502	100.0	841	100.0



4) 한우 사육 규모 변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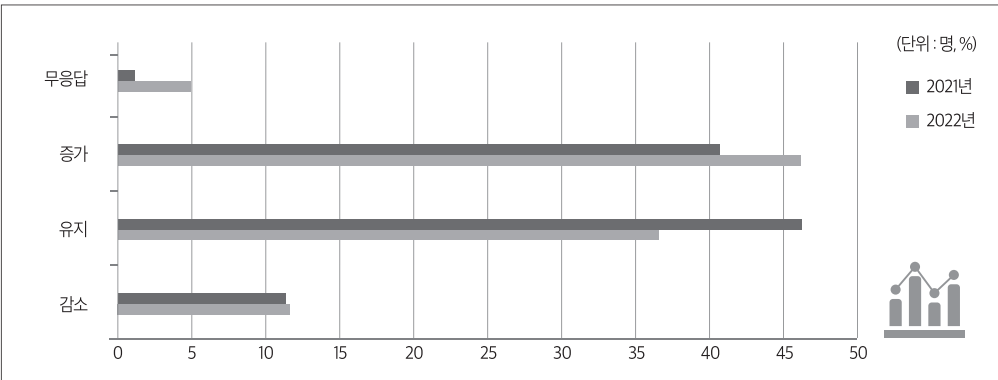
- ◆ 응답 농장의 사육 규모 변화 형태를 조사한 결과, 46.4%(149개 농장)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36.8%(118개 농장)는 사육 규모를 유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11.8%(38개 농장)는 사육 규모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우가격이 좋았던 전년도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농장 의 입식 의향을 높인 결과로 분석되었음



한우 사육 규모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1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감소	38	11.8	62	11.5
	유지	118	36.8	251	46.5
	증가	149	46.4	220	40.7
결측	무응답	16	5.0	7	1.3
합계		321	100.0	540	100.0



5) 한우 사육 지속 의향

◆ 농장주를 대상으로 향후(3년 후) 한우 사육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3.3%(139개 농장), '매우 있다'가 42.7%(137개 농장)으로 전체 응답자의 86.0%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년 조사 결과(94.9%) 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우 사육 지속 의향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1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전혀 없다	1	0.3	3	0.6
	없다	10	3.1	9	1.7
	모르겠다	19	5.9	13	2.4
	있다	139	43.3	259	48
	매우 있다	137	42.7	253	46.9
결측	무응답	15	4.7	3	0.6
합계		321	100.0	5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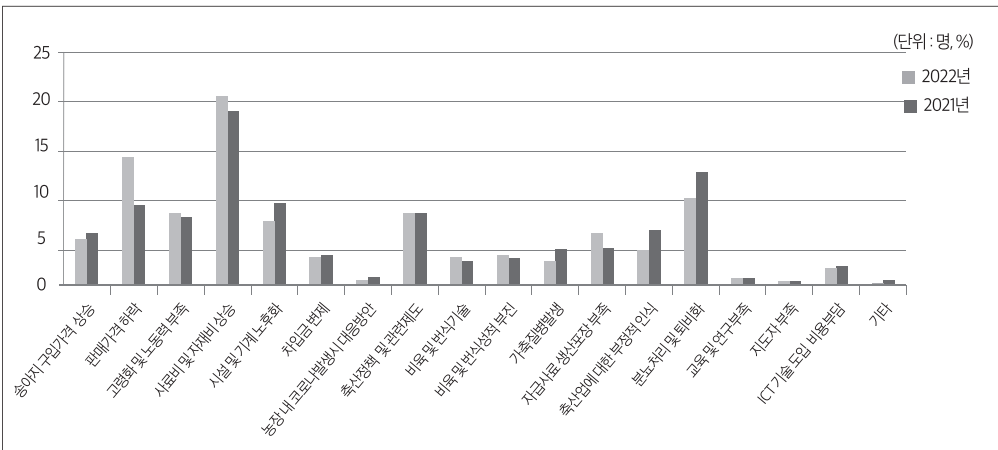
6) 한우 농장 경영 시 발생 애로사항

◆ 한우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장주가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사료비 및 자재비 상승(260건, 20.6%), 판매가격(출하가격) 하락(178건, 14.1%), 분뇨처리 및 퇴비화(124건, 9.8%),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103건, 8.1%), 축산정책 및 관련제도(101건, 8.0%), 축산정책 및 관련제도(101건, 8.0%) 등의 순으로 조사됨

한우 사육 경영 시 발생 애로사항(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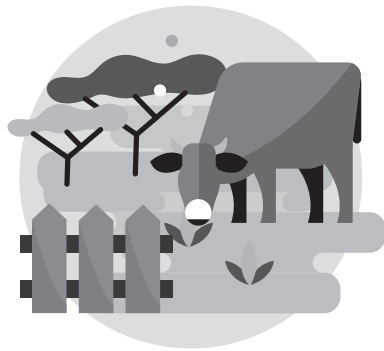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1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송아지 구입가격 상승	64	5.1	141	5.9
판매가격 하락	178	14.1	209	8.7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103	8.1	186	7.7
사료비 및 자재비 상승	260	20.6	459	19.0
시설 및 기계 노후화	91	7.2	217	9.0
차입금 변제	39	3.1	89	3.7
농장 내 코로나발생시 대응방안	10	0.8	26	1.1
축산정책 및 관련제도	101	8.0	193	8.0
비육 및 번식기술	40	3.2	73	3.0
비육 및 번식성적 부진	46	3.6	80	3.3
가축질병발생	37	2.9	102	4.2
자금사료 생산포장 부족	73	5.8	103	4.3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53	4.2	149	6.2
분뇨처리 및 퇴비화	124	9.8	294	12.2
교육 및 연구부족	13	1.0	24	1.0
지도자 부족	1	0.1	7	0.3
ICT 기술도입 비용부담	27	2.1	58	2.4
기타	5	0.4	0	0.0
합계	1,265	100.0	2,410	100.0



7)번식 후보우 주요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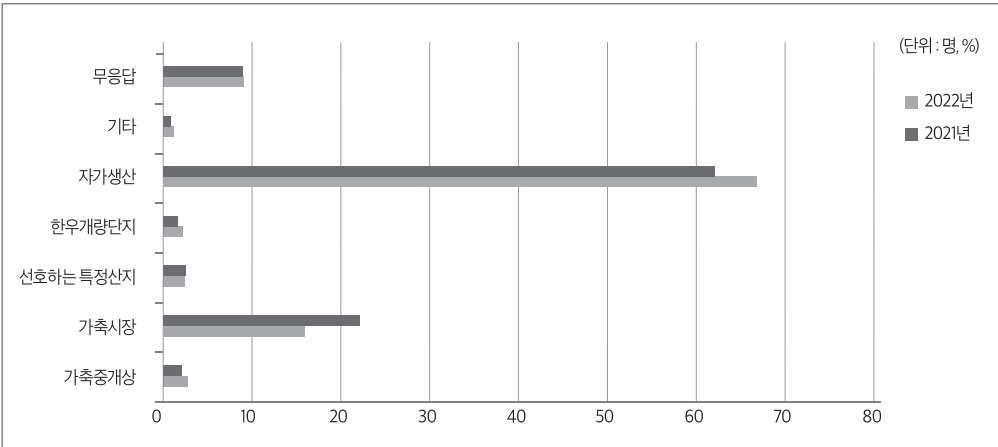
- ◆ 번식 후보우 주요 구입처를 조사한 결과 자가 생산 (66.7%), 가축시장(15.9%), 선호 특정산지(2.8%)의 순으로 조사되어 전년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번식 후보우의 주요 구입처로 자가 생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일관사육 중심의 사육형태에 따른 가축 계량의 상향평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번식 후보우 주요 구입처

(단위:명,%)

구분		2022년		2021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가축증개상	8	2.5	11	2
	가축시장	51	15.9	118	21.9
	선호하는 특정산지	9	2.8	16	3
	한우개량단지	8	2.5	9	1.7
	자가생산	214	66.7	336	62.2
결측	기타	4	1.2	5	0.9
	무응답	27	8.4	45	8.3
	합계	321	100.0	5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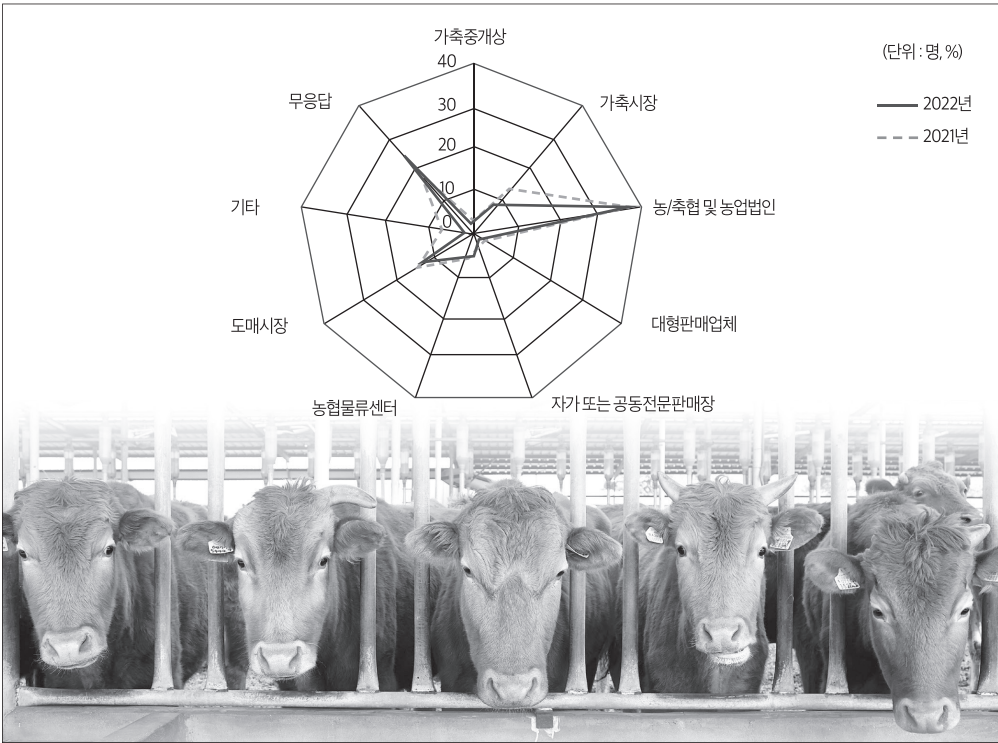
8)비육우 주요 출하처

- ◆ 비육우의 주요 출하처를 확인한 결과, 전년도(2021년 한우농가 경영실태조사) 조사와 같이 농/축협 및 농업법인 출하를 가장 선호(38.3%)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매시장(13.4%), 가축시장 (8.1%)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음

비육우 주요 출하처

(단위:명,%)

구분		2022년		2021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가축증개상	3	0.9	6	1.1
	가축시장	26	8.1	68	12.6
	농/축협 및 농업법인	123	38.3	194	35.9
	대형판매업체	10	3.1	22	4.1
	자가 또는 공동전문판매장	14	4.4	18	3.3
	농협물류센터	20	6.2	34	6.3
	도매시장	43	13.4	83	15.4
결측	기타	3	0.9	21	3.9
	무응답	79	24.6	96	17.4
합계		321	100.0	540	100.0



비육우 주요 출하처(다중응답)

9) 비육우 출하처 선택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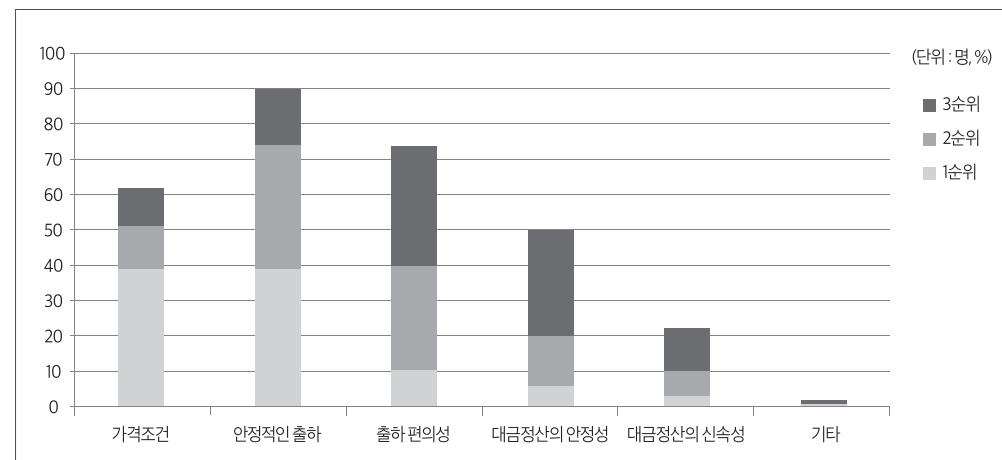
- ◆ 현재 거래하고 있는 비육우의 주요 출하처의 선택 기준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결정 요인으로는 안정적 인 출하(39.3%), 가격조건(38.0), 출하 편의성(11.6%) 순으로 확인되었음



비육우 출하처 선택 우선순위

(단위: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가격조건	92	38.0	33	14.9	20	9.5
안정적인 출하	95	39.3	78	35.1	31	14.7
출하 편의성	28	11.6	66	29.7	70	33.2
대금정산의 안정성	16	6.6	31	14.0	61	28.9
대금정산의 신속성	8	3.3	14	6.3	27	12.8
기타	3	1.2	0	0.0	2	0.9
합계	242	100.0	222	100.0	211	100.0



10)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무

- ◆ 농장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무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4%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7.1%의 응답자만이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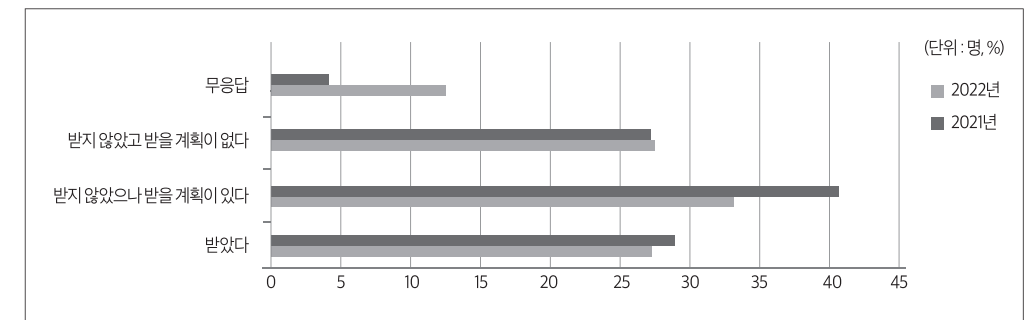
- 현재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받지 않은 농가의 55.2%(전체 응답자의 33.3%)는 향후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친환경 축산물 인증 수요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32.0%)'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증 후 자격 유지 애로(20.7%)', '미인증에도 판매 불편 없음(20.3%)'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전년도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무

(단위:명,%)

구분		2022년		2021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받았다	87	27.1	154	28.6
	받지 않았으나 받을 계획이 있다	107	33.3	219	40.6
	받지 않았고 받을 계획이 없다	87	27.1	145	26.9
결측	무응답	40	12.5	21	3.9
합계		321	100.0	539	100.0



친환경축산물 미인증 이유(다중응답)

(단위:명,%)

구분	2022년		2021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	142	32.0	304	32.3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60	13.5	132	14.0
인증 후 자격 유지 애로	92	20.7	222	23.6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불만	49	11.0	91	9.7
미인증에도 판매 불편 없음	90	20.3	174	18.5
기타	11	2.5	17	1.8
합계	444	100.0	940	100.0

음력 5월 5일 단오!

재미있는 단오절 풍습과 의미

일 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우리의 명절 단오! 농사만 지으며 살던 사회에서 봄에 곡식의 씨를 뿌리고 모를 심은 후 조금 쉴 여유가 있는 시기가 단오였다. 단오는 농사와 깊은 관계가 있고, 추석이 풍년을 감사하는 의미라면 단오는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의 제사를 올렸다. 다양한 단오절 풍습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오산시 블로그 [세상사는 e아기], 중도일보, 아시아경제

단오첩

음력 5월 5일 단오에는 신하들이 단오절을 축하하는 시를 지어 궁중에 올리곤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첩자를 바로 단오첩이라고 하는데, 동국세시기에서는 단오를 앞두고 승정원에서 시종과 당하문신들을 미리 뽑아 연상시를 지어 바치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단오첩 가운데 문장이 수려한 것들을 등수를 매겨 뽑은 뒤, 대궐 각전의 기둥과 상인방에 써서 붙여 두고 많은 이들이 읽게 했다.

단오선 나눠주기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었던 과거에는 부채가 여름날의 필수품이었다. 그래서 인지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에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다. 단오에 주고받는 부채를 단오선 혹은 절선이라고 한다. 과거 영호남 지역에서 임금에게 여러 자루의 부채를 선물하면, 임금은 이 부채를 시종 재신에게 하사했는데, 부채를 받은 시종재신은 이를 일가친척과 친지들에게 나눠 주던 풍습에서 단오선 나누기 풍습이 유래됐다고 한다.



단오장

단오하면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습은 바로 단오장이다. 단오장은 단오에 나쁜 귀신을 없애는 벽사의 의미로 여성들이 치장을 하던 풍습을 말하는데, 조선시대의 풍속화가 신윤복의 그림 '단오풍정' 속 여인네들이 개울가에 모여 몸단장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단오장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려진 풍습은 바로 '창포탕(창포물)에 머리 감기'이다. 단옷날 창포잎과 뿌리를 삶아 창포탕을 만들어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 외에도 창포뿌리로 만든 비녀(창포잠)을 머리에 꽂거나, 얼굴을 씻고, 목욕을 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옷(녹의홍상)을 입는 풍습도 모두 단오장에 해당된다.

단오절사

단오에는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단오절사의 풍습도 전해 내려온다. 절사란 계절이나 명절이 바뀔에 따라 사당이나 산소에 올라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묘제가 발달했는데, 설날, 한식, 단오, 추석과 같은 4대 명절에 행하는 묘제를 절사라고 한다. 조선 후기부터는 절일로서 단오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단오절사는 중국의 주자가례와는 형식이 다른 우리 고유의 제사 방식으로, 유래도 깊은 세시의례라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풍습이다.

수리취떡 먹기

설날엔 떡국, 추석은 송편, 정월대보름 부럼, 동지 팔죽 등과 함께 세시풍속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단오에는 '수리취떡'을 먹는다. 단오절식인 수리취떡은 멥쌀가루에 수리취나 쑥을 섞어 만든 절편으로 수리취떡의 수리는 우리말의 '수레'를 뜻하는데, 수레바퀴 모양으로 찍어내 '차륜병', '애엽병'으로 불린다. 수리취떡은 봄이 제철인 쑥을 활용한 음식으로 단오에 재액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설날이나 정월대보름, 단오에 과일나무의 나뭇가지 사이에 돌이나 나무토막을 끼워 넣는 풍속을 ‘나무시집보내기’라고 한다. 대추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단오에는 주로 대추나무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를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라고 부른다.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는 사람이 혼인을 해 자녀를 낳고 번식하는 것처럼 나무도 시집을 보내 많은 결실을 얻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과일은 해를 걸러 잘 열리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가 반복되는데 나무시집보내기를 하면 해거리를 하지 않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고 믿었다.

중국의 단오절 풍습과 음식

한국의 단오절, 소작과 태평 기원- 중국은 충신‘굴원’ 추모에서 유래



단오(端午)는 음력 5월 5일로서 한·중·일이 함께 지내는 명절이다. 중국 단오절의 유래는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인 굴원의 죽음을 추모로 유래됐다. 중국 단오절을 대표하는 풍습인 용선경기는 굴원이 강에 투신한 것을 안타까워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갔고 굴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자 물고기들이 그의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용선을 저어 물고기를 쫓아냈다. 이후로 굴원이 강에 몸을 던졌던 매년 음력 5월 5일이 되면 용선 타고 강으로 나가 굴원을 추모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 단오절 풍습으로는 알록달록한 오색의 실로 팔찌를 만들

고 오색실 팔찌는 단오절에 지니고 다니다 처음 비가 내리는 날 팔찌를 풀어 빗속에 버리면 한해 동안의 액운을 막아주고 행운이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

또 중국 단오절에는 ‘쥬즈’라는 음식을 먹는다. 쥬즈는 기호나 지역 또는 집안마다 내용물은 다르다. 보통 찹쌀에 대추, 팥, 호두, 돼지고기 등을 넣고 대나무 잎이나 갈땃잎에 싸서 찌는데 맛은 약밥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 음식 또한 굴원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다. 굴원이 투신하고 시신을 찾지 못하자 사람들은 물고기 밥이 될지 모르는 굴원의 시신을 안타까워하며 물고기들이 시신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 밥알을 물에 던졌다고 한다.

한국의 단오절이 소작과 태평을 기원하는 의미라면 중국은 굴원이라는 충신을 기리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대 명절 '한식'에 먹기 좋은 차가운 한우 요리

출처 : 한우자조금 웹진 [만들이] hanwoowebzine.com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인 ‘한식(寒食)’은 예로부터 설,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따르면 한식은 일정 기간 불의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시작되었는데, 조선시대에도 세종 13년(1431)에 한식 사흘 동안 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는 등 중요한 명절로 여겨져 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식에 즐길 수 있는 한우 요리를 소개했다.



신선하고 쫄깃한 식감
술안주로도 안성맞춤
한우 생고기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육회 미나리 무침



취향껏 다양하게 즐기자~
한우 육회 브루스케타

코로나19 보더 더 무서운 미세먼지의 습격

자동차 배기가스·중국발 미세먼지 심각
외출시 마스크 착용·식물 배치 등 방법

미세먼지 너의 정체가 뭐야?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진 대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 물질이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발전소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 혹은 요리 과정이나 흡연으로부터 발생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중 지름이 10 μ m보다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라 하고, 2.5 μ m 이하의 입자를 초미세먼지라 한다. 미세먼지에 흡착된 중금속,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등은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의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고,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순환하면서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세먼지의 성분은 발생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발생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적인 미세먼지는 흙,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인위적인 미세먼지는 매연, 배기가스, 날림먼지 등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인위적인 미세먼지다. 인위적인 미세먼지의 성분은 일반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황산염, 질산염 등의 덩어리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황산염, 질산염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고 탄소류와 검댕 20% 미만, 광물 5% 이상 등이다.

해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도 시간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가 잦다. 새해부터 미세먼지 소식 이어졌고, 불청객 탓에 환기는 물론 외출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알려진 미세먼지의 피해는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망쳐놓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미세먼지 원인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대규모 굴뚝산업과 자동차 매연, 발전소 등이, 국외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온 국민을 긴장하게 하는 미세먼지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상황을 꼼꼼히 챙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 풍속도를 바꿔 놓는다.

출처 : 데일리환경, 제민일보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심각



미세먼지의 자연적 발생원인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 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 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 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최대의 공업국인 중국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초미세먼지 중 32%는 중국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첫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 밖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스레인지, 전기 그릴, 오븐 등 조리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그것이다. 음식 표면에서 15~40nm 크기의 초기 입자가 생성되고 재료 중의 수분, 기름 등과 응결해 그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리법에 따라 발생 정도가 다른데 삶은 때보다는 굽거나 튀길 때 더 많이 발생한다. 이때는 평소보다 2배에서 60배 많은 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대처 국민안전수칙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유해한 작은 먼지 입자.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을까? 국민안전수칙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이 있다.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는 미세먼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가 혈관 속까지 침투해 뇌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국민 행동령도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화되는 경우, 단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 제한, 노후건설 장비 사용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하향 조절, 행정 및 공공기관 등의 차량 2부제 시행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또한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된다. 실내에서는 밖에서 유입되거나 집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창문을 닫고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마스크 착용 수분 섭취 중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면 몸을 깨끗이 씻고 남아있는 미세먼지 성분을 제거해야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미세먼지 성분이 쉽게 침투하게 된다. 이럴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미세먼지에 의해 생성되는 유해 물질들을 잘 배출해야 한다.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면 외출 전 코에 비염방지약을 뿌려주면 미세먼지 증상을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식물과 화분을 거실과 방에 배치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수시로 물청소를 통해 먼지를 제거,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야 한다. 먼지를 청소할 때는 물을 뿌려 머리를 가라앉힌 후 해야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으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문을 닫는 것이 능사?

미세먼지가 높다고 환기를 안시킬 수는 없다. 거실과 방문을 모두 닫고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 환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 3분 이내로 환기를 시키고 먼지가 쌓인 곳은 청소로 청결을 유지한다. 다만 호흡기 질환이나 천식 환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급적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환기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금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 보니 오늘도 '나쁨'이다.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삼가는 것도 하루, 이틀.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반드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할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외출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수준을 기록한다면 실내에서 활동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는 날에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PM10의 경우 81~150 μ m³, PM2.5의 경우 51~100 μ g/m³)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그것이 알고 싶다

외출시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도 미세먼지가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미 몸 속에 흡수된 중금속과 미세먼지는 배출하지 않으면 어떤 질환을 야기할지 모른다.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과 해독방법을 알아보자.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까지 않아도 된다?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 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하며 미세먼지 마스크는 마스크 포장 겉면에 '황사마스크' 또는 '의약외품'이라 적힌 식약처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황사마스크라 하더라도 착용법이 잘못되면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착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 인증 마크는 KF80, KF94로 표시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KF80은 평균 0.6마이크로그램의 미세입자 80% 이상을 막는다. 한편,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빨아서 재사용하면 정전기 기능과 필터가 손상돼 하루만 사용하고 버려야 한다.



미세먼지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입자가 매우 작아 폐와,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코의 점막을 통과해 뇌까지 도달해 인지능력 저하 등의 질환을 발생시킨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자폐아를 출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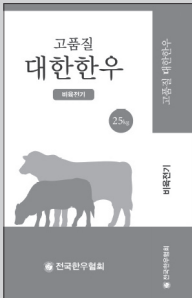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야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펙제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출하체중 750kg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초	2.0		자유채식								2.0	2.0	1.0													
	볏짚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육구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중 (kg)		130 ~ 150	150 ~ 170	170 ~ 190	190 ~ 210	210 ~ 230	230 ~ 250	250 ~ 265	270 ~ 285	290 ~ 305	310 ~ 325	330 ~ 345	350 ~ 365	370 ~ 385	390 ~ 405	410 ~ 425	430 ~ 445	450 ~ 465	470 ~ 485	490 ~ 505	510 ~ 515	520 ~ 53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배합	2 ~ 3 kg							3 ~ 4 kg														4 kg	
	섭취량	배합							배합														배합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대한한우 번식우				대한한우 육성기				대한한우 비육전기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천연물질을 의한 항병력 강화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블 이기				•발정과 수태를 최적으로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성정을위한충분한단백질공급				•성장을위한충분한단백질공급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적정에너지 공급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반추위기능을정상적으로유지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비타민 A 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영양소 균형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쾌적한환경 조성 필요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영양소 균형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비타민 A 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예송아지	20.0	2.5	20.0	번식우	14.0	2.0	15.0	육성기	15.0	2.5	20.0	비육전기	13.0	2.5	20.0	비육후기	12.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15.0	0.8	1.2	68.0	15.0	0.7	1.2	70.0	15.0	0.7	1.2	73.0	15.0	0.7	1.2	75.0

사료가격 투명화/합리적 가격/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23년 6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어린송아지
15,100



번식우
11,600



육성
11,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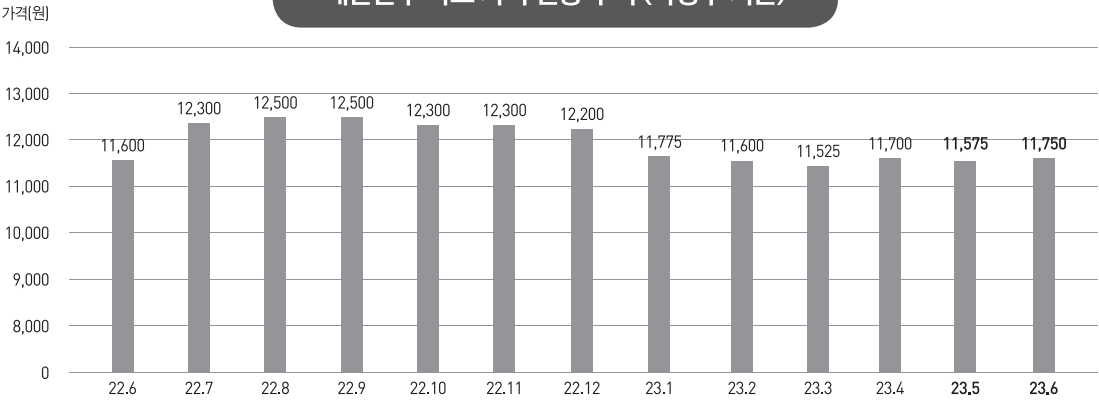


비육전기
11,950



비육후기
12,200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한우마당

Hanwoo Journal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은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24권 제6호(통권 199호) / 2023년 6월 10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광 고 이기찬 제 작 HNCOM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 화 02)525-1053 / 02)597-2377

편 집 김재광
발 송 자산포스트
팩 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